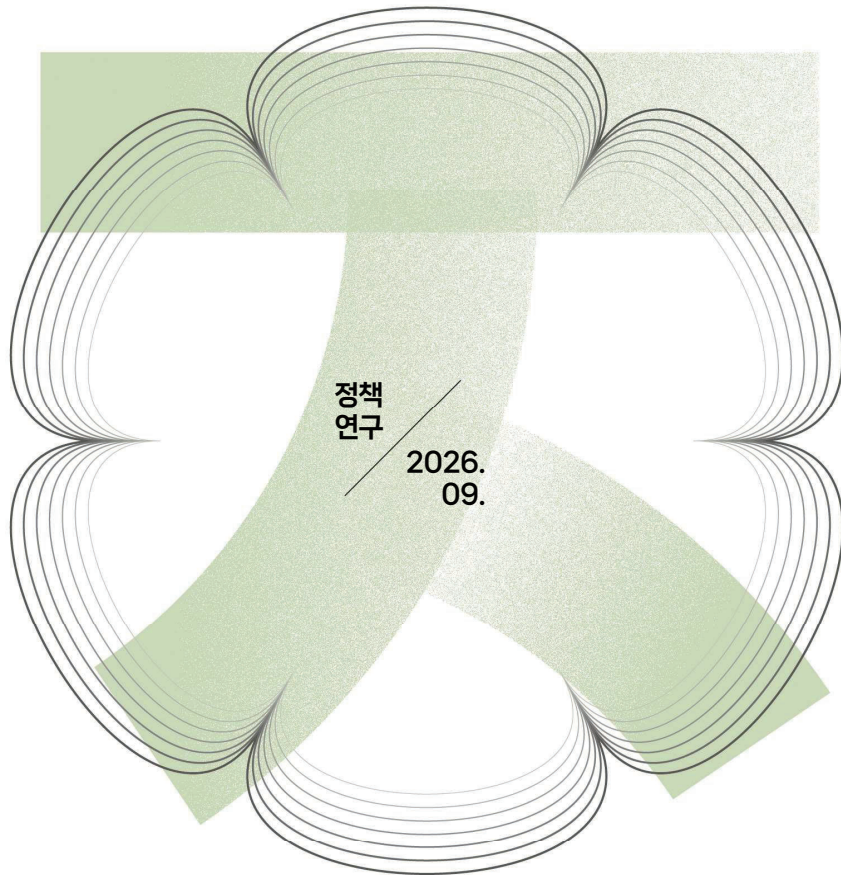


김해시 야간관광 현황 및 활성화 전략 방안 연구

최나리



연구진 profile

최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책임• 문화관광복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

| 요약 및 정책함의 |

■ 요약

- 본 연구는 김해시 야간관광 자원과 콘텐츠, 관광수요 및 소비 특성,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김해형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분석 결과,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 등 가야 역사문화자원을 비롯하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천문대 등 야간관광 잠재자원이 풍부하나 대표 브랜드와 정기 콘텐츠, 관광거점 간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축제기간 야간 방문인구 증가와 야간개장 광역권 방문수요 등을 통해 야간관광의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가 조사에서도 김해 야간관광의 발전 가능성을 96.6%가 높게 평가함
- 가야고도 도심권의 잠재력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가야 역사문화자원 기반 야간관광 브랜드 구축, 공연·체험·투어 등 대표 콘텐츠 육성, 지역상권·미식·숙박 연계가 주요 정책과제로 도출됨
- 「가야의 밤을 경험하고,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 김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가야 역사 기반 야간 특화 콘텐츠 고도화, 야간 접근성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로컬상권 연계 및 야간관광 소비 활성화, 민관협력 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성 확보의 4대 전략을 제시함

■ 정책함의

- 가야고도 도심권을 핵심거점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주요 역사자원을 중심으로 대표 콘텐츠를 우선 육성하고 원도심 상권과 주변자원으로 단계적으로 연계·확장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시설 조성보다 기존 관광자원의 콘텐츠화·정제화가 우선되어야 함
 - 기존 야간행사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주말·계절형 정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정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김해의 밤’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야간관광의 성과를 방문객 수보다 체류와 소비 중심으로 관리해야 함
 - 야간 콘텐츠를 미식·상권·숙박·쇼핑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고 소비하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콘텐츠와 함께 이동·정보·안전 등 야간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해야 함
 - 주요 관광거점 간 보행동선과 교통을 연계하고 다국어 정보, 귀가정보, 야간 안전 등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와 민관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함
 - 김해시와 김해문화관광재단의 역할 구분,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와 민관협력체계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II 야간관광 정책환경 및 국내외 사례	5
1. 야간관광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	5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제도 동향	11
3. 국내외 야간관광 주요 사례	15
4. 사례 비교 및 김해시 적용 시사점	21
III 김해시 야간관광 여건 분석	25
1. 김해시 야간관광 자원 및 콘텐츠 현황	25
2. 야간관광 수요 및 소비 특성	34
3.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 및 한계	42
IV 전문가 조사 및 종합진단	47
1. 전문가 조사 개요	47
2. 전문가 조사 결과	50
3. 김해시 야간관광 종합진단	59
4. 핵심 정책과제 및 전략 도출	62
V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방안	66
1. 비전 및 정책목표	66
2. 전략 1: 가야 역사 기반 야간 특화 콘텐츠 고도화	68
3. 전략 2: 야간 접근성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71
4. 전략 3: 로컬상권 연계 및 야간관광 소비 활성화	75
5. 전략 4: 민관협력 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성 확보	80
6. 단계별 추진방향	84
VI 결론	86
1. 주요 연구결과	86
2. 정책적 제언	88
참고문헌	92
부 록	94

I 서론

1 |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최근 김해시는 관광객 방문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관광객 유입이 숙박 및 지역 내 관광소비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방문객 수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을 강화하고 관광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김해시는 부산·창원 등 인접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광역 관광수요를 유치하기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접근성은 당일 방문과 주변 도시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여건에서 야간관광은 기존 관광자원의 이용시간을 확장하고, 주간 관광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당일형 관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최근 야간관광 정책은 단순한 야간경관 조성이나 일회성 행사 개최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교통·미식·상권·숙박 등과 연계하는 통합적인 관광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음
- 김해시는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봉황동유적 등 가야 역사문화자원을 비롯하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천문대, 원도심 상권 등 야간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개별 관광자원의 매력성에 비해 야간에 경험할 수 있는 상설 콘텐츠가 부족하고, 주요 관광거점 간 이동과 관광정보, 지역상권과의 연계체계도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따라서 개별 행사나 시설 중심의 접근을 넘어 가야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김해만의 야간관광 정체성을 확립하고, 콘텐츠·공간·상권·운영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장기적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김해시 야간관광의 자원과 콘텐츠, 관광수요 및 소비 특성, 관광수용태세와 정책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김해형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야간관광의 개념과 특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동향과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김해시 야간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기반과 적용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김해시의 야간관광 자원과 콘텐츠, 관광수요 및 소비 특성, 이동·안내·안전 등 관광수용태세와 기존 정책사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발전 가능성과 주요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야 역사문화 기반의 대표 야간콘텐츠 육성, 거점 간 접근성 강화, 상권 및 야간경제 연계,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김해시 야간관광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아울러 전략별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향후 김해시 야간관광 정책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김해시 야간관광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도시여건을 반영한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 범위는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설정함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기준연도는 2026년으로 설정하고, 통계 및 정책자료는 자료의 이용 가능성과 분석 목적을 고려하여 최신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함
- 관광수요 및 소비 특성은 2025~2026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책 및 제도 동향은 연구 수행 시점까지의 주요 변화를 반영함

■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김해시 전역으로 설정하되, 야간관광 자원과 콘텐츠, 상권 및 관광시설의 집적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 야간관광 거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함
 -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봉황동유적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된 도심권을 핵심 공간으로 설정함
 - 김해가야테마파크·김해천문대 등 기존 야간관광 자원과 원도심 상권을 주요 연계 공간으로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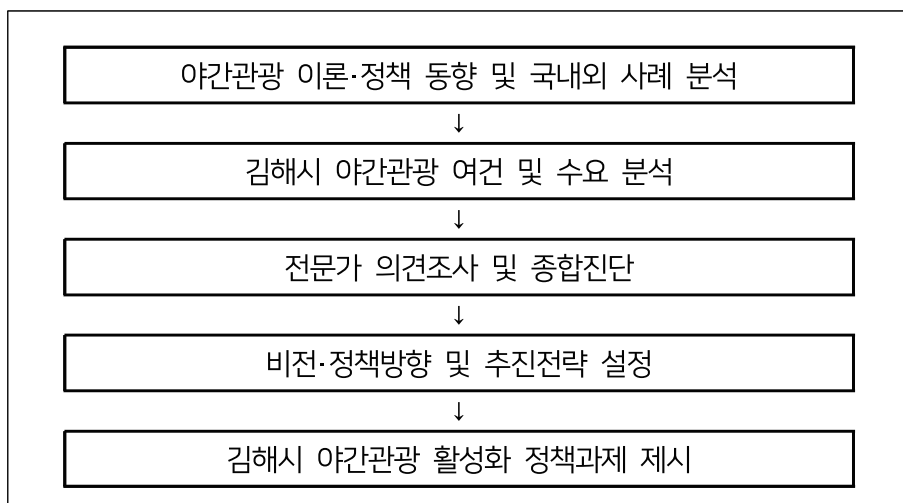
■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야간관광의 이론 및 정책 동향, 김해시 야간관광 여건 및 수요, 전문가 의견조사, 활성화 전략 수립으로 구성함
 - 야간관광 이론 및 정책 동향: 야간관광의 개념과 특성, 야간경제와의 관계, 선행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제도 동향, 국내외 주요 사례 검토

- 김해시 야간관광 여건 분석: 관광수요 및 소비 특성, 야간관광 자원과 콘텐츠, 기존 관련 정책·사업의 성과와 한계 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 및 종합진단: 야간관광의 현재 수준과 중요도, 권역별 발전 가능성, 활성화 전략의 중요도 및 실행 가능성 분석
-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김해시 야간관광 비전과 정책방향 설정, 추진 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 제시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 통계·빅데이터 분석,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를 병행하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을 도출함
- 주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
 - 통계 및 관광 관련 데이터 분석
 -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
 - 종합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 연구 절차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함



(그림 1-1)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연구 수행체계

II 야간관광 정책환경 및 국내외 사례

1 | 야간관광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

1) 야간관광의 개념

- 야간관광은 야간시간대에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으로, 관광객의 관람·체험·이동·소비 등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임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야간을 ‘해가 진 뒤부터 먼동이 트기 전까지의 동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¹⁾ 양희원(2019)은 야간관광을 야간시간대에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객과 관광기업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²⁾
- 한국관광공사(2020)는 야간관광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중 야간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관광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음³⁾
- 야간관광은 초기 야경 감상과 경관조명 중심에서 공연·축제·문화유산·미식·쇼핑·레저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대되었으며, 관광객에게 주간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따라서 야간관광은 단순히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관광자원과 도시공간을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는 관광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야간관광의 개념을 시간, 자원·콘텐츠, 활동, 공간, 정책 및 효과의 측면에서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2) 양희원(2019),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강원도 신관광 구현, 강원연구원 정책메모 제782호

3)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0.5.19.), “야간관광사업 3조 9천억 원 관광객 지출효과, 4만 명 일자리 창출 기대”

<표 2-1> 야간관광 개념의 주요 구성요소

구분	주요내용
시간적 범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자원·콘텐츠 범위	자연경관, 역사문화유산, 문화예술, 축제·공연, 미식·시장, 상업시설, 레저 등
활동적 범위	관람, 산책, 체험, 쇼핑, 식음, 공연, 투어, 스포츠·레저, 숙박 등
공간적 범위	개별 관광지뿐만 아니라 관광거점·동선·상권·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지역·도시공간
정책적 범위	콘텐츠, 경관, 이동·교통, 안전, 상권 연계, 거버넌스, 홍보·마케팅, 운영·성과관리
핵심 효과	체류시간 연장, 숙박 전환, 관광소비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이미지 제고

자료)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2) 야간관광의 유사 개념의 관계

- 야간관광은 체류형 관광, 생활관광, 야간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각 개념은 시간적 범위, 정책대상 및 활동영역에서 차이를 가짐⁴⁾
- 체류형 관광은 관광객이 방문지역에 일정 시간 이상 머물면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관광형태로, 야간관광은 주간에 집중된 관광활동을 저녁시간 이후까지 연장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숙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생활관광은 관광객이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에 머물며 지역의 음식, 상권, 문화, 일상적 삶을 경험하는 관광형태로, 전통시장·골목상권·지역음식·생활문화공간 등을 활용하는 야간관광과 높은 연계성을 가짐
- 야간경제(Night-Time Economy: NTE)는 일반적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제·사회·문화활동 전반을 포괄하며, 음식점·공연·문화예술·스포츠·쇼핑·교통·의료·관광 등 다양한 산업영역을 포함함⁵⁾
- 이에 비해 야간관광(Night-Time Tourism: NTT)은 관광객이 생활권을 벗어나 야간시간대에 다른 지역이 제공하는 관광매력물을 경험하는 관광활동을 의미함

4) 여수시(2024), 『여수시 야간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

5) 박경옥(2026), 야간경제 정책사례를 통한 부산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부산연구원 해외연수 2026-07-390

<표 2-2> 야간관광과 관련 개념의 관계

구분	주요 개념	핵심 정책 초점	야간관광과의 관계
야간관광	야간시간대의 관광활동	체류·경험·소비 확대	핵심 개념
체류형 관광	지역 내 체류 및 숙박	체류시간·숙박 확대	야간관광을 통한 주요 기대효과
생활관광	지역의 일상·생활문화 경험	지역성·주민·로컬콘텐츠	야간관광 콘텐츠와 연계
야간경제	야간시간대 경제·사회·문화활동 전반	소비·고용·도시활력	야간관광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경제영역

자료)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 따라서 야간관광 정책은 야경이나 조명시설 조성에 국한하기보다 관광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동, 소비, 숙박을 연결하여 체류형 관광을 촉진하고, 그 효과를 지역상권과 야간경제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3) 야간관광 자원의 유형

- 한국관광공사는 야간관광 자원을 관광목적과 활동형태에 따라 시설의존형, 경관관람형, 체험활동형, 엔터테인먼트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⁶⁾

■ 시설의존형

- 시설의존형은 특정 시설이나 공간이 야간관광 경험의 핵심 매력요소가 되는 유형으로 미디어아트시설, 전시·관람시설, 유원시설, 야간상업시설, 역사·유적지 등이 해당함
 - 미디어파사드·미디어아트, 박물관·미술관, 전망대, 테마파크, 수목원, 역사 유적지 야간개장 등이 대표적임
 - 일정한 장소와 운영시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설형 야간관광 거점을 형성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시설이나 기술 자체에 의존할 경우 지역 간 콘텐츠의 유사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지역의 역사문화장소성을 반영한 스토리와 체험요소를 결합할 필요가 있음

6) 여수시(2024), 『여수시 야간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

□ 경관관람형

- 경관관람형은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을 야간시간대에 감상하는 유형으로 드라이브, 유람선, 케이블카, 요트 등을 활용한 야경감상과 불꽃축제·레이저쇼·드론쇼·야간분수쇼 등의 야간 이벤트가 해당함
- 시각적 매력과 접근성이 높아 비교적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도시의 야간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유리함
- 관람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체류시간과 직접 소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식·쇼핑·체험·산책 등 주변 관광활동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체험활동형

- 체험활동형은 관광객의 직접적인 참여와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으로, 역사·문화, 레저·액티비티, 공연·콘서트, 자연체험, 쇼핑·시장, 투어프로그램, 미식·음식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함
- 문화유산 해설과 국가유산야행, 마라톤·트레킹·자전거·골프·낚시, 야간축제·공연·콘서트, 천문관측·캠핑, 야시장, 야간시티투어·스토리텔링투어, 야식투어 등이 대표적임
- 관광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체류시간을 늘리고 유료 관광상품으로 전환하기 용이하며,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시장·음식·지역예술인 등과 결합할 경우 지역 고유성과 주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음

□ 엔터테인먼트형

- 엔터테인먼트형은 야간시간대의 여가·오락활동을 중심으로 한 나이트라이프형 관광자원으로, 야간스포츠, 자동차극장, 실내스포츠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함
- 야간시간대의 여가 선택지를 확대하여 관광객의 활동시간을 연장하고, 특히 기존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확대하거나 새로운 야간 여가수요를 창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야간 엔터테인먼트가 특정 연령층이나 유흥 중심의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가족·스포츠·문화·웰니스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표 2-3> 야간관광 자원 유형

구분	자원 유형	예시
시설의존형	미디어아트 시설	·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등
	전시/관람 시설	· 박물관, 미술관, 전망타워, 전망대 등
	유원시설	· 공원, 테마파크, 루지, 동식물원, 민속촌, 수목원 등
	야간상업시설	· 카페, 쇼핑, 상업시설 등
	역사/유적지	· 단순관람형 고궁/문화재/유적지 야간개장 등
경관관람형	야경감상	· 드라이브, 유람선, 케이블카, 요트 등
	야간축제/이벤트	· 불꽃축제, 레이저쇼, 드론쇼, 야간분수쇼 등
체험활동형	역사/문화	· (해설형) 문화재야행 등
	레저/액티비티	· 마라톤, 트레킹, 자전거, 스키, 골프, 낚시 등
	공연/콘서트	· 야간축제, 공연, 콘서트 등
	자연	· 반딧불이, 야생동물관찰, 천문관측, 캠핑, 농어촌체험 등
	쇼핑/시장	· 야시장, 도깨비시장 등
	투어프로그램	· 야간시티투어, 야간투어, 스토리텔링 투어, 도보투어 등
	미식/음식	· 쿠킹클래스, 야식투어, 가맥거리, 포차거리 등
엔터테인먼트형	나이트라이프	· 야간스포츠, 자동차극장, 실내스포츠 등

자료) 여수시(2024), 『여수시 야간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 재인용: 한국관광공사(2020), 야간관광자원 실태조사 및 야간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4) 야간관광의 정책적 의의

-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당일형 관광을 숙박·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도 ‘지역체류형 관광기반 마련을 통한 야간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사업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⁷⁾
- 야간관광은 기존 관광자원의 시간적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주간 중심으로 이용되던 역사문화자원, 박물관, 상권 등을 야간시간대까지 활용함으로써 대규모 신규 관광개발 없이도 관광자원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음
- 또한 야간관광은 음식점·카페·전통시장·숙박·쇼핑·교통 등 다양한 업종과 연계되므로 관광객의 소비를 지역상권으로 확산시키고 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7)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25),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중장기 정책지원 전략 수립』

- 실제 야간관광 특화도시 정책도 단순 콘텐츠뿐 아니라 이동·숙박·식음·치안 등 야간관광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최근 중장기 정책에서는 관광소비 확대와 야간 일자리 창출까지 주요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음⁸⁾
- 그리고 야간관광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산업자원을 ‘밤’이라는 새로운 시간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지역만의 관광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브랜드 차별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관광콘텐츠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 운영시간, 상권, 주민수용성, 조직·거버넌스 등 다양한 정책영역의 연계가 요구되는 종합적인 지역관광정책이라는 특징도 가짐
- 따라서 야간관광의 정책적 가치는 단순히 밤에 볼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고유자원의 활용시간을 확장하고 새로운 관광경험을 창출하여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늘리며, 이를 지역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데 있음

8)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25),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중장기 정책지원 전략 수립』

2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제도 동향

1) 체류형 지역관광 확대와 야간관광의 정책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지역 관광의 방향을 방문객 유치 중심에서 지역 체류와 관광경험 확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⁹⁾
- 이러한 정책기조에서 야간관광은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시간을 확대하고 지역의 관광콘텐츠와 관광서비스를 연계하는 체류형 지역관광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중앙정부의 야간관광 정책은 개별 야경 명소의 발굴을 넘어 콘텐츠, 관광인프라 및 관광서비스를 결합하는 도시 단위의 관광환경 조성으로 확대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2030 성과관리 전략계획」에서도 야간관광을 위계이전 등과 함께 체류형 관광콘텐츠로 명시하고 있어, 야간관광이 지역 체류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¹⁰⁾

2)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추진¹¹⁾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2년부터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야간 관광명소와 콘텐츠뿐 아니라 식음·숙박·교통·안내·쇼핑 등 관련 관광여건을 종합적으로 갖춘 도시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사업 유형은 지역 관광기반과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명소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함
 - 주요 사업은 지역 고유의 야간 콘텐츠 개발, 기존 관광자원 간 연계, 경관 명소 조성, 관광여건 개선 및 홍보·마케팅 등으로 구성됨
- 2022년 인천광역시·통영시를 시작으로 2023년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강릉시·전주시·진주시, 2024년 공주시·성주군·여수시가 선정되어 2024년까지 총 10개 지역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됨

9) 문화체육관광부(2022),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

10) 문화체육관광부(2026), 성과관리 전략계획(2025~2030)

1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2.7.7.), “밤 여행이 더욱 매력적인 관광도시 만든다”

- 특히 기존 관광콘텐츠의 시·공간적 확장, 이벤트성 콘텐츠의 정기 운영, 지역 고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지역 관광자원의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정책적 특징을 가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2.9.5), “밤에도 관광의 빛 밝힌다”

(그림 2-1) 야간관광 특화도시 구상도(안)

3)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을 통한 야간관광 브랜드 확산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전국의 야간경관 명소와 야간 체험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을 선정하여 전국 단위의 야간관광 자원 발굴과 홍보를 추진함¹²⁾
- 선정 대상에는 기존 야경 명소뿐 아니라 드론쇼, 미디어아트,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다양한 유형의 야간관광 자원을 통합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이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이 도시 단위의 관광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전국의 개별 야간관광 명소와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3.11.8.),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으로 야간관광 빛낸다.



자료)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https://korean.visitkorea.or.kr/>)

(그림 2-2)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및 밤밤페스타

4) 지방자치단체 야간관광 관련 조례 제정 확산

- 야간관광이 지역관광 정책의 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관광진흥 조례에 야간관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활성화계획 수립, 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 관광환경 개선, 홍보·마케팅, 민관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¹³⁾
 -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콘텐츠 개발과 관광환경 개선, 민관협력 등을 계획에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는 별도의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주시는 기존 관광진흥 조례에 야간관광 관련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정책 여건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야간관광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화 동향은 야간관광이 개별 행사 지원을 넘어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관계기관 협력 등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표 2-4> 지방자치단체 야간관광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주요 제정지역	제도화 특징
광역자치단체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광역 단위 야간관광 정책 및 사업지원 근거 마련
경상남도	경상남도, 거제, 거창, 남해, 밀양, 사천, 의령 등	도와 시·군 단위로 관련 자치법규 확대
수도권	경기, 구리, 남양주, 부천, 여주, 연천, 파주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제도화
충청권	대전, 대덕, 유성, 중구, 세종, 충남, 서천, 홍성, 충북, 청주 등	광역·기초 단위 관련 조례 확산
호남권	전북, 김제, 무주, 임실, 목포, 여수, 영암, 완도 등	관광자원 활용 및 야간관광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자료) 2026년 8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기준으로 연구자 작성

3 | 국내외 야간관광 주요 사례

1) 국내사례

▣ 제주특별자치도: 야밤 버스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2019년 제주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한 야간테마코스 「제주 도심 속 야간여행 야(夜)밤버스」를 운영하고 있음¹⁴⁾
- 야밤버스는 기존 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하여 해안경관, 역사문화유산, 전통시장 등 분산된 관광자원을 하나의 야간관광 코스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임
- 2026년 1차 운행은 7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6주간 매주 금·토요일 총 12회 운영되었으며,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약 2시간의 야간관광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주요 코스는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이호목마등대, 도두봉·오래물광장, 동문재래시장·산지천, 관덕정·제주목관아를 거쳐 공항으로 돌아오는 순환형으로 운영됨
 - 지역주민과 연계한 공연, 야시장 먹거리, 역사문화유산 관람 등을 결합하고 버스 내부에서는 관광해설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함
- 2026년 1차 운행에서 전 회차 예약 만석을 기록하여 9월 추가 운행이 이루어지는 등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관광수요가 확인됨
- 제주 사례의 정책적 특징은 기존 관광교통수단을 활용하여 분산된 관광자원을 연결하고, 관광지 간 이동과정 자체를 관광경험의 일부로 구성했다는 점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https://www.jeju-citybus.com/nighttour>)

(그림 2-3) 제주특별자치도 야밤버스

14)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https://www.jeju-citybus.com/nighttour/theme>).

□ 통영시: 앵커 콘텐츠와 구도심 연계형

- 통영시는 2022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성장지원형 도시로 선정되어 지역의 역사문화 및 예술자원을 활용한 야간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밤 아홉 시, 통영 오광(五光)’을 주제로 삼도수군통제영, 통영오광대, 전통공예 등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야간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 「투나잇 통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¹⁵⁾
- 주요 야간관광 공간은 디피랑, 동피랑, 서피랑, 삼도수군통제영, 강구안 등으로 구성되며, 각 공간의 관광자원과 기능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디피랑은 기존의 대표적인 야간관광시설로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함
 - 강구안은 공연과 이벤트, 주변 식음시설 등을 활용한 야간문화 및 상업활동의 중심공간으로 활용됨
 - 삼도수군통제영과 구도심은 역사문화 및 도보관광 자원으로 연계됨
- 또한 오션 나이트 프린지 위크, 모던 보이즈 위크 등 문화예술 기반의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존 관광시설과 지역문화 콘텐츠의 연계를 추진함
- 통영 사례의 정책적 특징은 기존 대표 야간관광시설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공간과 항구경관, 구도심 상권의 기능을 연계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임



자료) 통영시 관광 공식 블로그 통영애온나(<https://blog.naver.com/tyaeonna>)

(그림 2-4) 통영시 야간관광 프로그램

15)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2.9.5.), “밤에도 관광의 빛 밝힌다”.

□ 경주: 역사문화유산 야간개방

- 경주시는 동궁과 월지, 첨성대, 월정교 등 주요 역사문화유산을 야간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경주야경 10Pick」을 통해 주요 야경 명소를 통합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경주 야간관광은 기존 역사문화유산의 관람시간을 연장하고 야간경관과 문화관광해설을 결합하여 주간과 차별화된 역사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됨¹⁶⁾
 -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 주요 역사문화유산은 야간 관람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주요 관광거점에서는 야간 문화관광해설을 제공하여 역사문화유산의 이해와 관광경험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동궁과 월지, 첨성대, 계림, 교촌마을, 월정교 등 주요 관광자원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보행형 야간관광이 가능한 공간구조를 갖추고 있음
- 경주 사례의 정책적 특징은 기존 역사문화유산의 야간개방과 해설, 보행동선을 결합하여 개별 관광지를 연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형 야간관광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임



자료) 경주시 홈페이지(<https://www.gyeongju.go.kr/tour>)

(그림 2-5) 경주의 역사유산 야간개방

16) 경주시 홈페이지(<https://www.gyeongju.go.kr/tour>)

<표 2-5> 국내 야간관광 도시 사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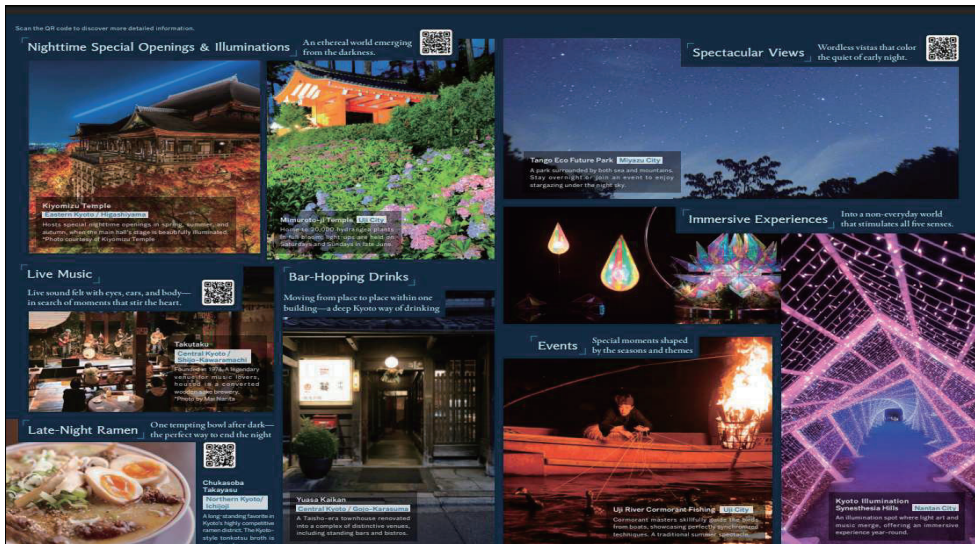
구분	제주	통영	경주
사례 유형	관광교통 연계형	앵커 콘텐츠·구도심 연계형	역사문화유산 야간개방·보행형
핵심 정체성	제주 도심·해안의 밤과 이동경험	통제영 역사·전통예술과 항구문화가 어우러진 통영의 밤	신라 역사문화유산과 왕경의 밤
대표 콘텐츠	제주시티투어 야밤버스, 야밤 DJ, 도두봉 트레킹, 동문재래시장·야시장 체험	디프랑 오션 나이트 프른지 워크, 모던 보이즈 워크, 강구안 공연·다이닝	경주야경 10Pick, 동궁과 월지 ·첨성대·월성교 야간개방, 야간 문화관광해설·야간투어
상권 연계	동문재래시장 등 원도심 먹거리·쇼핑과 연결	강구안 주변 음식점·카페· 플리마켓 등을 공연·다이닝 프로그램과 직접 연계	황리단길의 미식·카페·쇼핑과 인근 역사유산 야간관람 연계
주요 강점	야간 이동불편을 해소하면서 이동과정 자체를 관광콘텐츠로 전환	대표 야간시설의 집객력을 활용하여 구도심·상권으로 관광객의 이동과 소비를 확산	역사유산의 야간개방과 보행, 해설을 결합하여 도시 역사공간 자체를 야간관광 콘텐츠화

자료) 연구자 작성

2) 국외사례

□ 일본 교토: 문화유산 야간개방과 예약형 특별체험¹⁷⁾

- 교토는 사찰·신사·정원 등 기존 역사문화자원의 야간 특별개방과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주간 중심의 문화유산 관광을 야간시간대까지 확장하고 있음
- 교토 야간관광은 문화유산을 연중 상시적으로 개방하기보다 계절과 특정 기간을 중심으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유산의 장소성과 보존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방식을 차별화하고 있음
 - 2026년 「교토 여름 특별개방」에서는 가미가모 신사와 기타노 텐만구 신사 등 주요 문화유산을 야간에 특별 개방함
 - 일부 문화유산에서는 시간대별 예약 또는 예약 우선 방식을 활용하여 관람객의 입장과 이용을 관리함
- 또한 야간버스 등 교통수단을 통해 주요 관광지역과 교통거점을 연결하여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지원하고 있음
- 교토 사례의 정책적 특징은 기존 문화유산을 활용하되 개방시기, 관람인원, 이용방식 등을 관리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적 활용을 병행한다는 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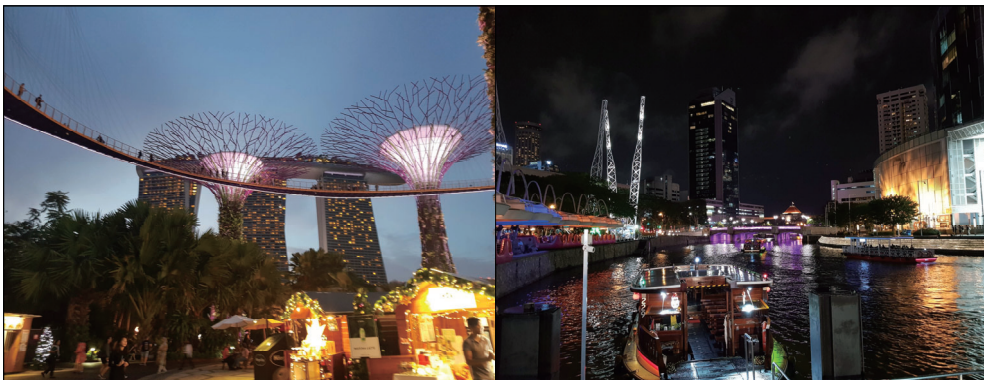
자료) 교토시 공식 관광사이트(<https://kyoto.travel/en/morning-and-night>)

(그림 2-6) 교토시 야간관광 가이드

17) 교토시 공식 관광사이트(<https://kyoto.travel>)

□ 싱가포르: 상설 앵커 콘텐츠와 복합 야간관광 거점

- 싱가포르는 마리나베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클락키, 나이트 사파리 등 도시의 주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상설형 야간관광 콘텐츠와 복합적인 관광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 관광거점은 도시경관, 자연생태, 식음·상업, 엔터테인먼트 등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며, 야간시간대에 차별화된 관광경험을 제공함
 -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슈퍼트리의 경관조명과 음악을 결합한 가든 랩소디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대표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음¹⁸⁾
 - 클락키는 기존 수변공간과 보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음식점, 상업시설 및 여가활동이 결합된 복합적인 야간관광 공간을 형성하고 있음
- 특히 일정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공연과 관광시설, 식음·쇼핑 및 보행공간을 결합하여 관광객이 여러 활동을 연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음
- 싱가포르 사례의 정책적 특징은 야간시간대 자체를 관광상품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고, 상설 콘텐츠와 주변 관광서비스를 결합하여 복합적인 야간관광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임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2-7) 싱가포르 가든 랩소디 및 클락키

18) 마리나베이샌즈호텔(<https://ko.marinabaysands.com/>)

4 | 사례 비교 및 김해시 적용 시사점

1) 국내외 사례 비교

-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 야간관광은 지역의 자원과 도시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자원의 야간 활용, 대표 콘텐츠의 운영, 관광거점 간 연결, 지역상권과의 연계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가 주요 정책요소로 나타남
- 국내 사례는 기존 관광자원과 도시공간을 활용하여 야간관광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임. 제주는 관광교통, 통영은 대표 관광시설과 구도심의 연계, 경주는 역사문화유산의 야간개방과 보행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국외 사례는 야간관광의 운영방식과 관광경험의 차별화에 특징이 있음. 교토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적 활용을 병행하는 운영방식을, 싱가포르는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대표 콘텐츠와 복합 관광거점의 연계를 보여줌

<표 2-6> 국내외 야간관광 사례 비교 및 김해시 적용방향

구분	주요 정책적 특징	김해시 적용방향
제주	기존 관광교통을 활용한 분산 관광자원 연결	도심과 거점 간 야간관광 교통 연계
통영	대표 관광시설과 역사문화공간·구도심 연계	대표 콘텐츠와 원도심 상권의 연계
경주	역사문화유산의 야간개방 및 보행관광	가야 역사문화자원 중심의 야간 보행관광
교토	계절별 특별개방, 예약제 및 문화유산 보존	문화유산 특성을 고려한 예약형 야간체험
싱가포르	정기적인 상설 콘텐츠와 복합 관광거점	야간 특화 앵커 콘텐츠 및 복합 관광상품

자료) 국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2) 김해시 적용 시사점

■ 가야 역사문화자원 기반 야간관광 정체성 확립

- 경주와 교토는 역사문화유산을 야간에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관광경험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통영은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와 예술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음
- 김해 역시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봉황동유적 등 가야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야간관광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가야의 건국과 해상교류, 철기문화 등 역사적 이야기를 야간 해설, 스토리 투어, 공연 및 체험 콘텐츠로 구체화
- 개별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을 통합적인 야간관광 브랜드로 연계하여 대표성과 인지도 강화

■ 기존 관광자원의 야간 활용 확대 및 정기 콘텐츠 육성

- 경주와 교토는 기존 역사문화유산의 야간개방을 통해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일정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상설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인 야간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 김해는 국가유산야행, 가야문화축제, 가야테마파크 빛축제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하되 특정 행사 기간에 집중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봉황동유적을 연결하는 예약형 야간 스토리투어를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정례화
 - 기존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중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연·체험·투어 콘텐츠를 선별하여 관광상품화
 - 가야테마파크와 김해천문대의 특성을 활용한 계절형 야간 프로그램 운영
- 특히 역사문화유산은 보존과 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계절별 특별개방과 예약형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운영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야간관광과 지역상권의 기능적 연계

- 통영과 싱가포르 클락키 사례는 주요 관광시설과 주변 상업공간을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관광객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운영방식을 보여줌
- 김해는 가야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된 도심권역과 봉리단길·동상동 등 기존 상권을 연결하여 지역 내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상품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가야 역사문화 야간 스토리투어와 지역음식을 결합한 미식관광 상품 개발
 - 주요 야간행사와 연계한 야간 푸드마켓 및 지역상권 공동 프로모션 운영
 - 야간관광 프로그램과 음식점·숙박시설의 할인 혜택을 결합한 관광상품 개발

□ 관광거점 간 이동 편의성 및 공간적 연결성 강화

- 제주와 경주 사례는 야간관광에서 관광거점 간 이동방식과 공간적 연결성이 중요한 정책요소임을 보여줌
- 김해는 주요 역사문화자원과 원도심 상권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도심형 야간 보행관광축을 구축하고, 외곽 관광거점과의 교통 연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박물관역·수로왕릉역을 진입거점으로 국립김해박물관·대성동고분군·수로왕릉·봉황동유적·봉리단길·동상동을 연결하는 야간 보행코스 구축
 - 주요 관광거점의 보행안전과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관광객의 이용시간에 따른 단축형·순환형 관광코스 운영
 - 김해가야테마파크·김해천문대 등 외곽 관광거점과 도심권을 연결하는 예약형 셔틀 및 관광택시 도입 검토

□ 지속가능한 야간관광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 교토 사례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적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세부 운영방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싱가포르 사례는 정기적인 콘텐츠 운영과 관광서비스의 연계 필요성을 보여줌
- 김해는 역사문화유산과 자연·과학형 관광자원, 도심 상권이 공존하는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차별화된 야간관광 운영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봉황동유적은 문화유산의 보존 여건을 고려한 저조도 경관과 해설·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봉리단길·동상동 등 상업지역은 미식·공연·야간마켓 등을 중심으로 관광객과 지역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야간관광 공간으로 활용
 - 김해천문대와 분성산 권역은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천체관측 등 자연·과학형 야간관광의 특성 강화
- 아울러 야간관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김해시와 관계기관, 지역상인 및 관광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소음·빛공해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합 시사점

-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방식을 개선하고 개별 관광거점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가야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야간관광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기적인 대표 콘텐츠를 육성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이동 편의와 지역상권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민 생활환경을 고려한 운영방식 및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야간관광 정책의 실행기반을 확보해야 함
- 사례분석 결과는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고유자원에 기반한 대표성 강화, 관광거점 간 연결성 개선, 지역상권과의 소비 연계,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 이러한 시사점은 이후 김해시 여건분석과 전문가 조사 결과와 종합하여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데 활용함

III 김해시 야간관광 여건 분석

1 | 김해시 야간관광 자원 및 콘텐츠 현황

1) 역사문화유산형

■ 김해국가유산야행

- 김해국가유산야행은 수로왕릉과 수릉원 일원을 중심으로 김해의 가야 역사 문화자원을 야간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형 야간관광 콘텐츠임
- 2017년 제1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2025년에는 「金海, 빛을 담고 그리다」를 주제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수로왕릉과 수릉원 일원에서 개최됨
 - 야경·야로·야설·야사·야화·야시·야식·야숙의 ‘8夜’를 중심으로 야간경관, 해설, 공연, 체험, 플리마켓, 음식, 숙박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함
 - 특히 수로왕릉 미디어파사드, 드론라이트쇼, 가야복식 및 제례 관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가유산을 단순히 야간 개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역사 문화자원과 야간 체험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됨
- 2025년 행사기간 수로왕릉·수릉원·대성동고분군 일원의 통신사 유동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총 64,537명, 일평균 약 21,5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됨¹⁹⁾
 - 주요 체험프로그램에는 총 6,602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전모집 프로그램의 높은 참여실적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야간프로그램에 일정 수준의 수요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행사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으나, 해당 조사는 행사 방문객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결과라는 점에서 조사결과를 행사 전체 방문객의 인식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만족도 결과는 김해시 야간관광 전반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2025년 국가유산야행 참여자의 행사 경험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19) 김해문화관광재단 내부자료(2025)



자료) 김해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https://www.ghct.or.kr/>)

(그림 3-1) 2025 김해국가유산야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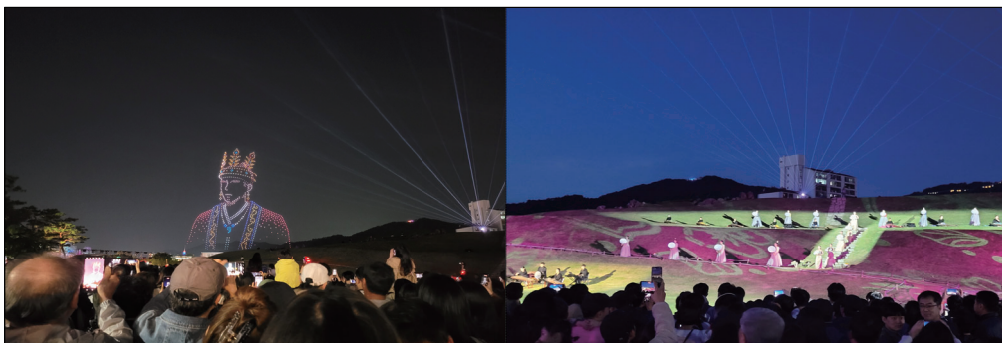
■ 대성동고분군 밤마실

- 대성동고분군 밤마실은 세계유산 대성동고분군과 박물관 일원을 야간에 활용하여 가야 고분문화와 역사적 장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프로그램임
- 프로그램은 야간 해설, 역사문화 체험, 공연 및 경관 연출 등을 결합하여 낮 시간대 관람 중심의 대성동고분군 이용을 야간시간대로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특히 세계유산이라는 장소적 상징성과 가야 역사문화 콘텐츠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해의 역사문화유산형 야간관광 자원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확인됨
- 다만 현재 운영은 특정 행사 또는 일정에 집중되어 있어 상시적·정기적 야간관광 콘텐츠라기보다 기간형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함

■ 가야문화축제 야간 콘텐츠

- 가야문화축제는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수릉원, 봉황동유적, 가야의 거리 등 김해의 주요 가야 역사문화공간을 중심으로 개최되며, 주간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2026년 축제에서는 개·폐막식, 가야판타지아, 드론라이팅쇼, 해반천 밤마실 등 야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가야 역사문화자원을 공연·경관·체험 콘텐츠로 확장함

- 특히 축제기간 이동통신 자료에서 야간시간대 방문인구 증가가 주간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야간 프로그램 운영 시 방문수요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결과는 축제라는 대규모 이벤트가 개최된 특정 기간의 자료라는 점에서 김해시의 평상시 야간관광 수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축제형 야간콘텐츠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었을 때 나타난 방문수요의 사례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3-2) 2026 가야문화축제 야간 프로그램

2) 문화예술·공연형

■ 김해가야테마파크 야간개장 및 빛축제²⁰⁾

- 김해가야테마파크 야간개장은 기존 주간 중심의 테마파크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확대하고, 빛을 활용한 야간경관과 산책, 공연·불꽃쇼 등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김해의 대표적인 정가·반복형 야간관광 콘텐츠임
- 2026년 야간개장은 4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에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17시 20분부터 22시까지임
 - 특정 축제기간에 한정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음
- 2026년에는 ‘나이트 거북가든’ 등 신규 야간경관 콘텐츠를 도입하였으며, 4월 10일부터 5월까지 유료 야간입장객이 약 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 김해문화관광재단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야간개장 방문객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거주지역이 김해 33.9%, 부산 33.9%, 김해를 제외한 경남 19.0%, 기타 지역 13.2%로 나타남
 - 김해·부산·경남 지역 응답자가 전체의 86.8%를 차지하여 조사표본에서는 근거리 광역권 방문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방문형태는 유아동반 가족 62%, 성인 가족 23%로 가족단위 방문객이 응답자의 85%를 차지하여 가족단위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야간을 포함한 첫 방문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야간 재방문 23%, 다 회 방문 9% 등 야간에 2회 이상 방문한 응답자도 32%로 나타남



자료) 김해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https://www.ghct.or.kr/>)

(그림 3-3) 김해가야테마파크 야간개장

- 한편 야간개장 기간 중인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제3회 빛축제 「빛을 향한 향해」가 개최되었으며, 행사기간 유료 방문객은 총 18,751명, 일평균 약 1,875명, 최대 일일 방문객은 5,253명으로 집계됨
- 이처럼 김해가야테마파크는 장기간의 주말 야간개장을 기본으로 운영하면서 특정 기간에는 빛축제와 같은 집중형 콘텐츠를 결합하는 운영구조를 갖추고 있어, 일회성 축제 중심의 야간관광과 구별되는 정기·반복형 야간관광 자원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야간개장 방문특성은 128명의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므로 전체 유료 방문객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유료 방문객 실적과 설문조사 결과를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자료) 김해문화관광재단 내부자료

(그림 3-4) 김해가야테마파크 빛축제

□ 밤의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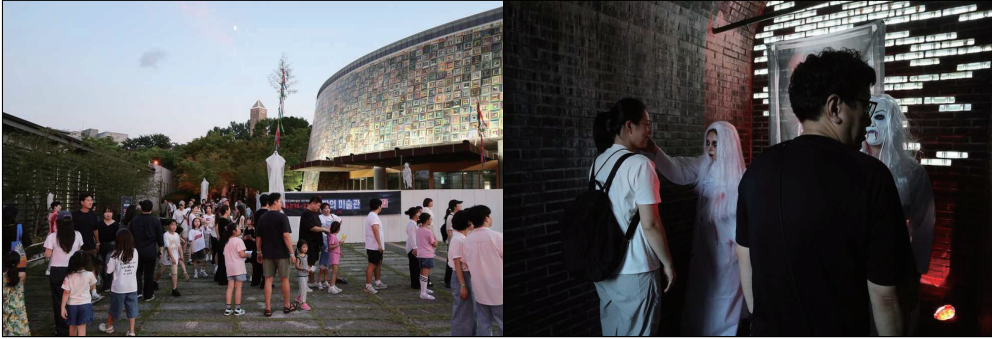
- 밤의 미술관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의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확대하고 전시 관람과 특별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문화예술형 야간관광 콘텐츠로, 2026년 3회째를 맞이함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며, 2026년에는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까지 참여 공간을 확대하여 야간시간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힘



자료) 김해문화관광재단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홈페이지(<https://clayarch.ghct.or.kr/>)

(그림 3-5) 밤의 미술관 홍보 포스터

- 2026년에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오작오작 밤의 미술관」을 주제로 운영하였으며, 미술관 야간개장에 특별한 주제와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주간의 일반적인 전시 관람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함



자료) 김해문화관광재단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내부자료

(그림 3-6) 오싹오싹 밤의 미술관 행사

- 밤의 미술관은 기존 문화시설의 운영시간을 야간으로 확장하고 전시·체험 등 특별 프로그램을 결합한 사례로, 별도의 신규 관광시설 조성 없이 기존 문화 예술자원을 야간시간대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 다만 현재는 특정 행사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정기·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야간개장이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된 야간관광 프로그램과는 운영형태에서 차이가 있음

3) 자연·과학·레저 체험형

■ 김해천문대

- 김해천문대는 분성산 정상에 위치한 과학문화시설로, 천체관측과 과학체험, 김해도심의 야경 감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과학형 야간관광 자원임
- 2002년 개관한 김해천문대는 가야의 역사적 이야기와 천문과학을 결합한 시설로, 건물 외관은 수로왕의 탄생설화에 등장하는 ‘알’을 형상화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음
 -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로, 천체관측과 과학체험, 야간 경관 감상이 가능한 상설 야간이용 시설의 특성을 지님
- 김해천문대 방문객 수는 2023년 45,020명에서 2024년 47,589명, 2025년 50,94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 대비 2025년 약 13.2% 증가함. 2026년에는 8월까지 32,610명이 방문함

<표 3-1> 김해천문대 방문객 수

(단위: 명)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월
방문객 수	45,020	47,589	50,941	3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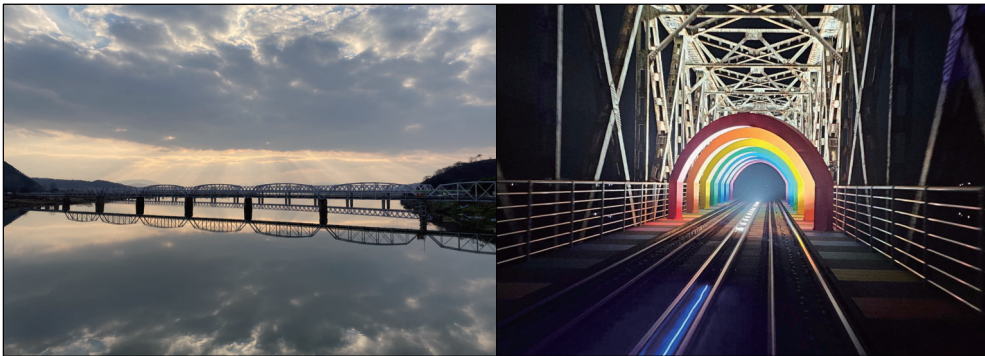
자료) 김해문화관광재단 내부자료

- 김해천문대는 야간 운영이 이루어지는 상설 시설이라는 점에서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축제·행사형 야간 콘텐츠와 차별성이 있으며, 천체관측이라는 목적형 체험에 분성산의 자연환경과 도심 야경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임
- 또한 김해가야테마파크와 동일한 분성산 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과학 체험과 문화·관광시설 간 공간적 연계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분성산 하늘길 야간 명소화 사업」을 통해 권역 내 야간관광 자원 간 물리적 연결 여건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재 야간 이용은 천문대 자체의 관측·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김해가야테마파크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된 야간관광 코스나 프로그램으로의 이용은 제한적인 상황임

■ 김해낙동강레일파크

- 김해낙동강레일파크는 낙동강 수변경관과 철교, 레일바이크 등을 활용하여 이동과 자연경관 감상을 결합한 자연·레저 체험형 관광시설로, 주말·공휴일을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일몰 이후까지 연장하고 있음
- 특히 낙동강 일몰경관을 ‘왕의 노을’로 명명하여 레일바이크 이용과 낙동강의 일몰경관 감상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간 레저시설과 차별화된 특성을 지님
- 2026년 연장운영은 4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말·공휴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레일바이크는 19시 20분까지, 와인동굴은 20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레일파크의 야간 이용은 심야시간대까지 이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일몰 전후부터 초저녁 시간대까지 운영되는 형태로, 자연경관의 시간적 특성을 활용한 야간관광 자원이라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운영방식은 기존 주간 중심 관광시설의 이용시간을 일몰 이후까지 확장하여 방문객이 낙동강의 일몰과 초저녁 경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별도의 신규 시설 조성보다는 기존 관광시설과 자연경관을 야간시간대로 확장하여 활용하는 사례에 해당함
- 다만 실제 운영시간이 레일바이크 19시 20분, 와인동굴 20시까지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야간관광 콘텐츠와 비교하면 운영시간이 상대적으로 이르며, 현재의 운영형태는 본격적인 야간관광보다는 일몰 전후의 경관체험과 기존 관광시설의 연장운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자료)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낙동강레일파크(<https://rp.ghct.or.kr>)

(그림 3-7) 김해낙동강레일파크 노을 및 야간경관

4) 미식형

□ 김해뒷고기푸드페스타

- 김해뒷고기푸드페스타는 김해의 대표적인 지역 먹거리인 ‘뒷고기’를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 뒷고기 업소와 전문 셰프,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등을 결합한 미식형 야간관광 콘텐츠임
- 2026년 행사는 「미식의 반전, 히든 투 히어로(Hidden to Hero)」를 주제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김해문화의전당 야외 일원에서 개최되었음
 -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어 저녁시간대 음식과 공연·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됨

- 대표 프로그램인 ‘김해미식평상’은 지역 뒷고기 업소에서 제공하는 고기와 밑반찬 등을 방문객이 야외 평상에서 직접 구워 먹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단순한 음식 판매보다 지역의 음식문화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임
- 행사장에서는 뒷고기 시식·판매뿐만 아니라 지역 셰프와의 협업 메뉴,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등이 함께 운영되어 지역음식을 중심으로 미식·문화·체험을 결합한 축제형 콘텐츠의 성격을 보임
- 김해뒷고기푸드페스타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생활음식인 뒷고기를 축제 및 관광콘텐츠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김해 야간관광과는 다른 지역 생활문화 기반의 콘텐츠라는 특징을 지님
- 다만 현재는 연 1회, 2일간 개최되는 축제형 행사로 운영되고 있어 축제기간 외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로서는 한계가 있음
- 또한 행사장에서의 음식 소비와 체험이 주변 음식점이나 상권 이용으로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지역상권 및 일상적 관광소비와의 연계 효과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3-8) 2026 김해뒷고기푸드페스타 행사

2 | 야간관광 수요 및 소비 특성

1) 분석 개요

- 김해시의 야간관광 수요와 소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26년 가야문화축제 기간의 이동통신 방문인구 및 카드 소비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야간 시간대 내비게이션 관심지점 자료, 김해가야테마파크 야간개장 이용객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가야문화축제는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수릉원 등 주요 역사문화관광자원과 도심 일원에서 개최되며, 드론라이팅쇼, 해반천 밤마실 등 야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야간 콘텐츠가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기간의 방문수요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사례로 활용함
- 다만 가야문화축제의 이동통신 및 카드 소비자료는 특정 축제기간과 축제 영향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므로 김해시의 평상시 또는 연중 야간관광 수요와 소비특성을 나타내는 자료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내비게이션 자료는 목적지 검색행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실제 방문객 수와는 차이가 있으며, 가야테마파크 이용객 조사는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야간개장 방문객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전체 야간개장 방문객의 특성을 대표하는 자료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각 자료의 분석대상·기간·지표의 성격을 구분하여, 김해에서 야간 콘텐츠가 공급되었을 때 나타나는 방문수요와 소비 변화 및 야간개장 이용객의 특성을 파악하는 사례자료로 활용함

2) 가야문화축제 기간 야간 방문수요 특성

-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25년과 2026년 가야문화축제 기간의 시간대별 방문인구를 비교한 결과, 2026년 축제기간에는 주간보다 야간시간대의 방문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주간시간대(07:00~17:59)의 평균 방문인구는 2025년 14,017명에서 2026년 14,803명으로 5.6% 증가한 반면, 야간시간대(18:00~23:59)는 13,920명에서 16,581명으로 19.1% 증가함

<표 3-2> 가야문화축제 기간 주야간 평균 방문인구

시간대	2025년(명)	2026년(명)	증감률(%)
주간(07:00~17:59)	14,017	14,803	5.6
야간(18:00~23:59)	13,920	16,581	19.1

자료) 가야문화축제 SK 이동통신 방문인구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 작성

- 시간대별로는 2026년 18시 19,391명, 19시 20,233명, 20시 20,196명으로 나타나 18~20시에 방문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각각 27.0%, 28.3%, 26.5%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가야문화축제라는 특정 행사기간에 야간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야간시간대 방문인구 증가가 주간보다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줌
- 다만 이동통신 자료만으로 공연·드론쇼·야간산책 등 개별 프로그램이 방문 증가에 미친 영향을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특정 야간 콘텐츠의 직접적인 유인효과로 단정하기보다는 축제기간의 야간 방문수요가 확대된 사례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3) 가야문화축제 기간 소비 특성

- 가야문화축제 기간 카드 소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축제기간 총 카드 지출액은 57억 9,487만 원으로 2025년 45억 5,479만 원 대비 27.2% 증가함
- 김해시민의 카드지출액은 2025년 약 34억 3,156만 원에서 2026년 약 41억 7,382만 원으로 21.6% 증가하였으며, 외부 방문객은 약 11억 2,323만 원에서 16억 2,105만 원으로 44.3% 증가하여 외부 방문객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 가야문화축제 기간 지출액 현황

구분	2025년(천 원)	2026년(천 원)	증감률(%)
김해시민	3,431,564	4,173,822	21.6
외부 방문객	1,123,229	1,621,051	44.3
합계	4,554,793	5,794,873	27.2

자료) 김해시(2026), 2026 가야문화축제 평가 및 컨설팅 보고서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 이는 축제기간 동안 방문인구 증가와 함께 카드소비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외부 방문객의 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보여줌
- 다만 카드 소비자료는 축제기간 전체의 소비자료로 18시 이후 야간시간대의 소비를 별도로 산출한 자료가 아니므로, 총 카드지출액 증가를 야간관광에 따른 소비효과로 직접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자료는 야간 방문인구 증가와 같은 기간 지역 내 소비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되, 야간 방문객의 소비액이나 야간관광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와는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4) 내비게이션 자료를 통한 야간 관심지점 특성

-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야간관광 내비게이션 검색자료를 살펴보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경남지역 상위 관심지점 가운데 김해 소재 시설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이 1위, 신세계백화점 김해점이 7위로 나타남

<표 3-4> 야간시간대 경상남도 내비게이션 관심지점 상위 10

순위	시군구명	관심 지점명
1	김해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
2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3	창원시 성산구	투썸플레이스 창원귀산해변점
4	양산시	통도사
5	통영시	통영중앙전통시장
6	창원시 성산구	롯데백화점 창원점
7	김해시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8	창원시 진해구	진해루
9	창원시 성산구	더시티7쇼핑몰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NC파크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2025.09.~2026.08.

- 경남지역 상위 10개 관심지점에는 쇼핑시설, 전통시장, 카페, 문화유산, 수변공간,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김해에서는 대형 쇼핑시설 2개소가 포함됨
- 반면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봉황동유적 등 김해의 주요 역사문화관광자원은 해당 기간 경남지역 야간시간대 내비게이션 관심지점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내비게이션 관심지점 자료는 목적지 검색량을 기반으로 한 지표로 실제 방문객 수나 관광수요를 직접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며, 시설의 규모, 주차·차량 이용 여부, 검색방식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자료는 김해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실제 야간 방문수요가 부족하다는 근거라기보다는, 해당 기간 차량 내비게이션 검색에서 대형 쇼핑시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현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5) 가야테마파크 야간개장 이용객 특성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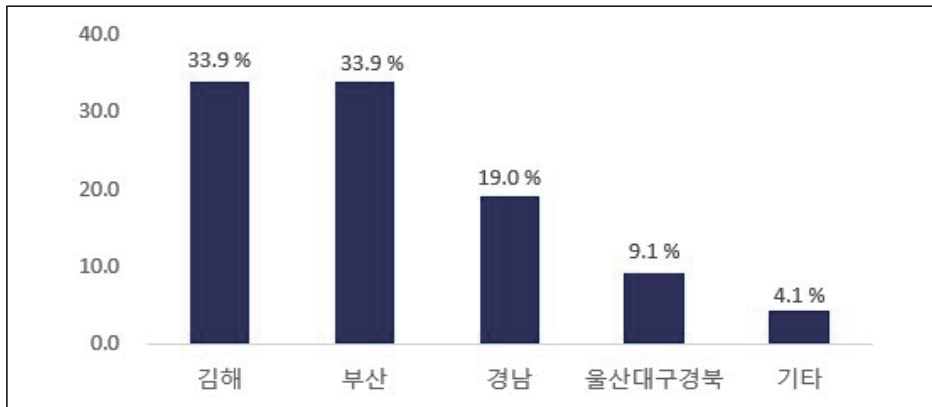
□ 조사개요

- 김해문화관광재단은 가야테마파크 야간개장 이용객의 특성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야간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28명이 조사에 참여함
- 이하의 거주지역, 동반자 유형, 정보획득 경로, 만족 및 개선사항은 실제 유료 방문객 전체에 대한 통계가 아니라 128명의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 거주지역

- 설문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김해와 부산이 각각 33.9%로 가장 높았으며, 김해를 제외한 경남 19.0%, 울산·대구·경북 9.1%, 기타 지역 4.1% 순으로 나타남
- 조사표본에서는 김해·부산·경남 거주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김해 및 인접지역 거주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임

21) 김해문화관광재단 내부자료 활용하여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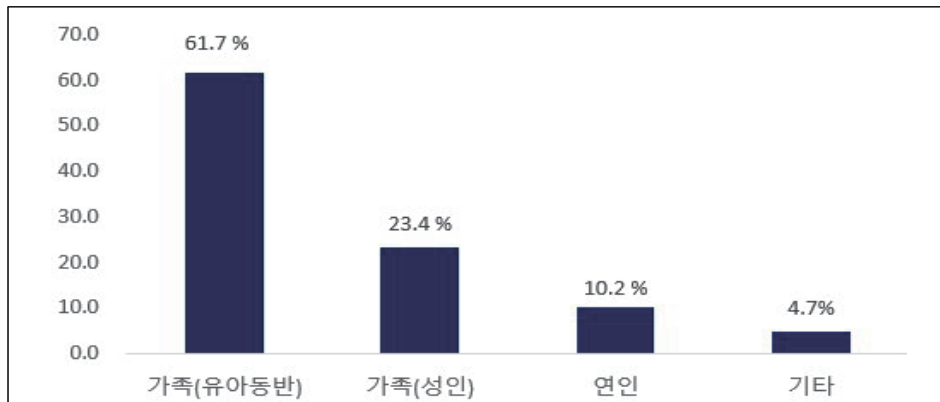


자료) 김해문화관광재단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3-9) 거주지역

□ 동반자 유형

- 동반자 유형은 유아동반 가족 61.7%, 성인 가족 23.4%로 가족단위 방문객이 설문응답자의 85%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연인 방문객은 10.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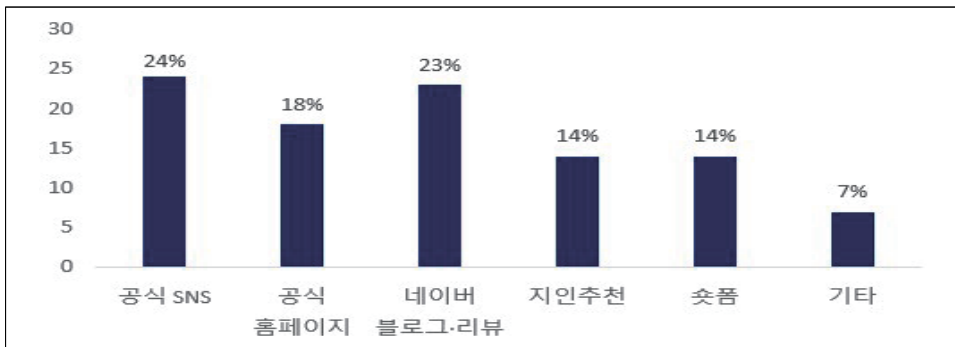
자료) 김해문화관광재단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3-10) 동반자 유형

- 특히 유아동반 가족의 비중이 가장 높아 조사에 참여한 야간개장 이용객에서는 가족단위 이용이 두드러지는 특성이 나타남

방문정보 획득경로

- 방문정보 획득경로는 복수응답 기준 공식 SNS 24%, 네이버 블로그·리뷰 23%, 공식 홈페이지 18%, 인플루언서 숏폼 14%, 지인 추천 1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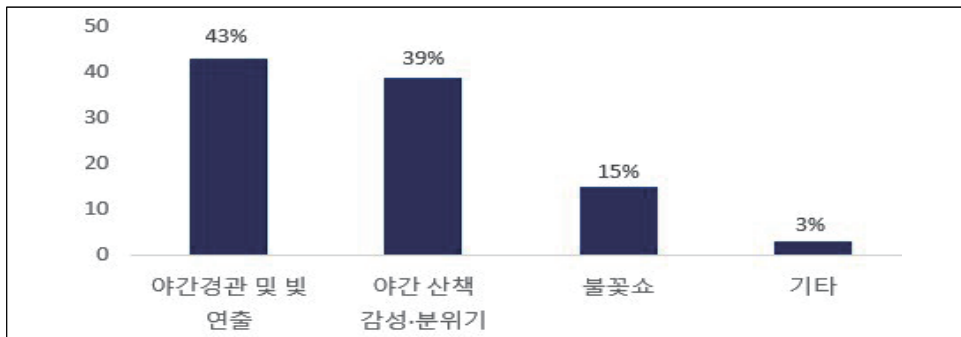
자료) 김해문화관광재단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3-11) 방문정보 획득경로

- 조사결과에서는 공식 SNS와 네이버 블로그·리뷰의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온라인 채널을 통한 방문정보 획득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임

만족 및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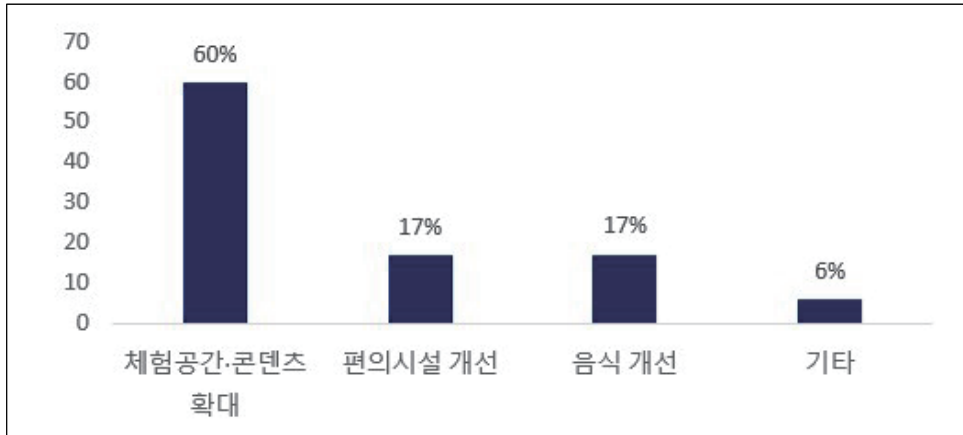
- 야간개장에서 만족한 요소는 야간경관 및 빛 연출 44%, 야간 산책의 감성과 분위기 39%, 불꽃쇼 15%, 기타 2% 순으로 나타남



자료) 김해문화관광재단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3-12) 만족한 점

-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체험·볼거리 확대가 60%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시설 개선과 음식 개선이 각각 17%로 나타남



자료) 김해문화관광재단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3-13) 개선할 점

-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설문응답자들은 야간경관과 산책 분위기에 대한 만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한 반면, 개선사항으로는 체험·볼거리 확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6) 종합분석

- 분석결과, 김해에서는 축제 및 야간개장과 같이 야간시간대에 콘텐츠가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시기에 일정한 야간 방문수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가야문화축제 기간에는 2025년 대비 2026년 주간 평균 방문인구가 5.6% 증가한 데 비해 야간 평균 방문인구는 19.1% 증가하여, 해당 축제기간에는 야간시간대의 방문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같은 기간 카드지출액도 전년 대비 27.2% 증가하고 외부 방문객의 지출 증가율이 44.3%로 나타났으나, 카드자료는 주·야간 소비를 구분하지 않은 축제기간 전체 자료이므로 이를 야간관광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효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가야테마파크 야간개장 이용객 1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해·부산·경남 거주자와 가족단위 이용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야간경관 및 빛 연출과 산책 분위기에 대한 만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개선사항으로는 체험·볼거리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내비게이션 관심지점에서는 김해의 대형 쇼핑시설이 경남지역 상위권에 포함된 반면 주요 역사문화자원은 상위 10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비게이션 검색량은 실제 방문량과 다른 지표이므로 이를 역사문화자원의 야간관광 경쟁력이나 실제 방문수요로 직접 해석하는 것은 제한적임
- 종합하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통해 특정 축제 및 야간개장 기간에 야간 방문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단위·인접지역 이용객, 야간경관 및 산책 등에 대한 수요 특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분석자료가 특정 축제기간과 개별 시설의 설문조사에 집중되어 있어 김해시 전체의 연중 야간관광 수요와 소비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분석결과는 김해시 전체 야간관광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는 자료라기보다, 야간 콘텐츠가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시기의 방문·소비 변화와 개별 야간관광시설 이용객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3 |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 및 한계

1) 기존 야간관광 관련 사업 추진 특성

- 김해시는 야간관광을 독립된 단일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국가유산, 문화예술, 축제, 관광시설 운영, 미식 등 기존 문화·관광 정책과 사업을 통해 야간 콘텐츠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음
-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통한 김해국가유산야행, 가야문화축제의 야간 프로그램, 김해가야테마파크 야간개장 및 빛축제, 대성동고분군과 수로왕릉 일원의 야간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김해뒷고기푸드페스타와 같이 지역의 음식문화를 활용한 야간 콘텐츠도 추진되고 있음
- 이와 함께 문화도시 조성사업, 동아시아문화도시, 지역관광추진조직(DMO), 국가유산 활용사업 등 다양한 문화·관광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야간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사업주체,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음
- 이러한 추진과정을 종합하면 김해의 야간관광은 개별 사업과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야간 활용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나, 이를 도시 차원의 야간관광 정책으로 통합하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구조로 볼 수 있음

2) 기존 사업의 주요 성과

▣ 역사문화자원의 야간 활용 확대

- 기존 사업의 주요 성과는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등 가야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시간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확대되고, 관람 중심의 이용방식에 공연·체험·전시·경관연출 등이 결합되기 시작했다는 점임
- 김해국가유산야행을 비롯하여 가야문화축제의 야간 프로그램, 대성동고분군 및 수로왕릉 일원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면서 가야 역사문화자원을 야간시간대에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 기반이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왔음
- 특히 김해국가유산야행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표적인 역사문화형 야간 콘텐츠로, 국가유산의 야간개방과 공연·체험·전시 등을 결합하는 운영 경험을 축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축제·관광시설의 야간 운영 확대

- 가야문화축제는 드론라이팅쇼, 해반천 밤마실 등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축제의 운영시간과 콘텐츠 범위를 저녁시간대까지 확대해 왔음
- 수요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6년 가야문화축제 기간에는 전년 대비 주간 평균 방문인구가 5.6% 증가한 데 비해 야간 평균 방문인구는 19.1% 증가하여, 특정 축제기간에 야간 방문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됨
- 김해가야테마파크 역시 봄부터 가을까지 주말을 중심으로 야간개장을 반복 운영하면서 특정 축제일에 한정되지 않는 정기·반복형 야간관광 콘텐츠의 운영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김해의 야간관광은 특정 문화행사 중심에서 역사문화자원, 축제, 관광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기존 자원을 야간시간대로 확장하여 활용하는 형태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 야간관광 콘텐츠 유형의 다양화

- 초기의 역사문화자원 중심 야간 콘텐츠에서 최근에는 문화예술, 자연·과학·레저, 미식 등으로 야간관광의 콘텐츠 유형이 확대되고 있음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의 「밤의 미술관」은 기존 문화시설의 야간개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김해천문대는 천체관측과 도심 야경을 결합한 상설 야간 이용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 김해낙동강레일파크 역시 일몰 이후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자연경관을 활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또한 김해뒷고기푸드페스타와 같이 지역의 생활음식을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역사문화 중심의 야간관광 자원구조가 문화예술·자연체험·미식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기존 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음

3) 기존·계획사업을 통한 야간관광 기반 확충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 김해시는 회현동 일원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 규모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은 회현연가·봉황대·가야의 길 등을 중심으로 수로왕릉·김해한옥체험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협력사업, 홍보·마케팅 및 사업조직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사업은 봉황대길을 중심으로 원도심 관광환경을 개선하고 수로왕릉 등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로컬공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야간관광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가야고도 도심권의 관광기반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야간관광과 연계 가능한 관련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분성산 하늘길 야간 명소화 사업

- 김해시는 김해천문대, 김해가야테마파크, 분산성 등 분성산 일원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분성산 하늘길 야간 명소화 사업」을 2027~2028년 추진할 계획임
- 사업은 총 18억 원 규모로 약 1.2km 구간의 테마형 야간경관 조성, 분산성 벽면 약 800m 구간의 미디어파사드 및 빛 연출, 김해천문대 야간경관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현재 김해가야테마파크와 김해천문대 등 개별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성산권 야간 이용공간을 분산성 등 주변 관광자원으로 확대하는 야간관광 기반조성 성격의 계획 사업임

4) 기존 사업의 구조적 한계

□ 행사·기간 중심의 운영으로 연속성 부족

- 김해의 야간관광 콘텐츠는 유형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상당수가 특정 축제·행사기간 또는 특정 요일과 계절에 운영되는 형태로 연중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김해국가유산야행과 가야문화축제는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밤의 미술관과 김해뒷고기푸드페스타 역시 특정 행사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김해가야테마파크 야간개장 및 낙동강레일파크 연장 운영은 비교적 장기간 반복 운영되지만 운영기간과 요일이 정해져 있음
- 따라서 현재 김해의 야간관광은 개별 행사기간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공급되는 반면, 행사와 행사 사이의 평상시 야간관광 공급에는 상대적인 공백이 존재하는 구조로 볼 수 있음

■ 야간관광 자원 간 공간적·기능적 연계 부족

- 김해의 야간관광 자원은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봉황동유적 등 가야고도도심권, 김해가야테마파크·김해천문대 등 분성산권, 봉리단길·동상시장 등 원도심 상권 등에 분포하고 있으나 각 권역과 자원을 연결하는 야간관광 이용체계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음
- 특히 개별 관광자원과 행사가 각각의 운영시간과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관광객이 여러 야간관광 자원을 하나의 코스로 연속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기존 시티투어가 주간시간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야간시간대 주요 관광거점 간 이동을 지원하는 관광교통 기능도 제한적인 상황임

■ 도시 차원의 대표성과 통합성 부족

- 국가유산야행, 가야문화축제, 가야테마파크 야간개장 및 빛축제 등 개별적으로 인지도가 형성된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을 종합하여 김해의 야간관광을 대표하는 하나의 도시 이미지나 통합된 관광경험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아직 미흡함
- 특히 개별 사업이 서로 다른 사업목적과 재원을 기반으로 추진되면서 사업별 명칭, 주제, 운영시기 및 홍보체계가 각각 구성되어 있어, 관광객의 관점에서 이를 하나의 ‘김해 야간관광’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는 개별 콘텐츠의 부족보다는 기존 콘텐츠를 도시 차원에서 연결하고 대표성을 형성하는 통합구조가 부족하다는 문제로 볼 수 있음

지역상권 및 소비와의 연계구조 미흡

- 국가유산야행, 가야문화축제, 김해뒷고기푸드페스타 등에서 음식·판매·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야간관광객의 소비가 행사장을 넘어 주변 상권까지 어느 정도 확산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봉황동유적 주변에는 봉리단길, 동상시장, 글로벌푸드타운 등 다양한 소비공간이 위치하고 있으나, 야간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이 하나의 관광경험이나 상품으로 연계되는 구조는 아직 제한적임
- 앞서 가야문화축제 분석에서도 축제기간 카드소비 증가는 확인되었으나, 주·야간 소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야간관광이 지역상권 매출에 미친 직접적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자료상 한계가 있음

통합적인 정책·성과관리체계 미흡

- 현재 김해의 야간관광 관련 사업은 관광, 문화예술, 국가유산, 축제, 지역상권 등 서로 다른 정책영역과 사업재원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어 개별 사업단위의 운영 및 성과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김해시 야간관광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정책관리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 특히 사업별로 방문객 수,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등의 성과자료가 생산되고 있으나 조사대상과 기간, 측정지표가 서로 달라 개별 사업의 성과를 비교하거나 김해시 전체 야간관광의 변화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현재 야간관광 수요 및 소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특정 축제기간의 이동통신·카드자료와 개별 시설의 이용객 조사 등에 한정되어 있어, 연중 야간 방문인구, 체류시간, 소비, 숙박 및 재방문 등 야간관광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IV 전문가 조사 및 종합진단

1 | 전문가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개요

- 본 조사는 김해시 야간관광의 자원성과 현재 수용태세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적으로 우선 개선해야 할 영역과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함
- 조사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관광정책·관광개발·지역관광·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 2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내용은 김해시 야간관광 여건, 권역별 발전 잠재력, 야간관광의 주요 문제점, 활성화 전략의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 주요 추진사업, 정책 추진기반 및 지속조건 등으로 구성함
- 정량평가와 개방형 의견조사를 병행하여 전문가가 인식하는 정책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제약요인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함께 파악함

<표 4-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구분	주요내용
조사목적	김해시 야간관광 여건 진단 및 정책 우선순위·핵심과제 도출
조사기간	2026. 7. 30.~8. 5.
조사대상	관광정책·관광개발·지역관광·문화관광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유효표본	29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전문가 설문조사, 정량·개방형 문항 병행
평가척도	중요도·현재 수준·잠재력·시급성·실행 가능성 5점 척도
주요내용	야간관광 여건, 권역별 잠재력, 문제점, 전략, 핵심사업, 추진체계 및 지속조건

2) 분석 방법

- 김해시 야간관광 여건은 12개 평가항목에 대해 정책적 중요도와 김해시의 현재 수준을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고, 두 평가값 간 격차를 산출하여 개선 필요성을 파악함
 - ‘중요도’는 해당 요소가 향후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지를 의미함
 - ‘현재 수준’은 해당 요소가 현재 김해시에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하는지를 의미함
 - 중요도와 현재 수준의 격차가 클수록 정책적 필요성에 비해 현재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해석함
-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는 각 평가항목을 네 영역으로 구분함
 - 중점개선 영역: 중요도는 높으나 현재 수준이 낮아 우선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한 영역
 - 유지·강화 영역: 중요도와 현재 수준이 모두 높아 기존 강점을 지속적으로 유지·고도화할 영역
 - 점진개선 영역: 중요도와 현재 수준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으나 정책기반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영역
 - 지속관리 영역: 현재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중요도가 평균보다 낮아 기존 수준을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보완할 영역
- 권역별 잠재력, 전략 중요도 및 실행 가능성 역시 전문가의 인식평가 결과이며, 실제 관광수요나 향후 관광객 규모를 직접 예측한 결과가 아니라 정책적 발전 가능성과 실행여건에 대한 전문가 판단으로 해석함
- 핵심 문제점과 주요 추진사업은 1~3순위 선택 결과를 선택빈도와 순위별 가중점수로 분석하고, 개방형 의견은 브랜드·콘텐츠·공간동선·교통·상권·거버넌스·지속가능성 등으로 범주화하여 정량결과를 보완함

3) 응답자 특성

- 응답자의 소속 분야는 대학·연구기관이 58.6%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문화관광재단 27.6%, 관광업계·여행업 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요 전문분야는 지역관광 및 관광마케팅이 51.7%, 관광정책 및 관광개발이 24.1%로, 전체의 75.8%가 관광정책·개발·마케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됨
- 관련 분야 경력은 20년 이상이 65.5%,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20.7%로, 15년 이상 경력자가 86.2%를 차지함
- 응답자 전원이 김해시 거주·근무, 관련 사업·연구·자문 또는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방문 경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김해시 관광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으로 판단됨

<표 4-2> 응답자 주요 특성

구분	주요 응답	비율(%)
소속 분야	대학·연구기관	58.6
	공공기관·문화관광재단	27.6
	관광업계·여행업	6.9
전문분야	지역관광 및 관광마케팅	51.7
	관광정책 및 관광개발	24.1
경력	20년 이상	65.5
	15년 이상~20년 미만	20.7
김해 경험	관련 사업·연구·자문 경험	48.3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방문	31.0
	거주 또는 근무 경험	20.7

2 | 전문가 조사 결과

1) 김해시 야간관광 여건 평가

(1) 정책적 중요도와 현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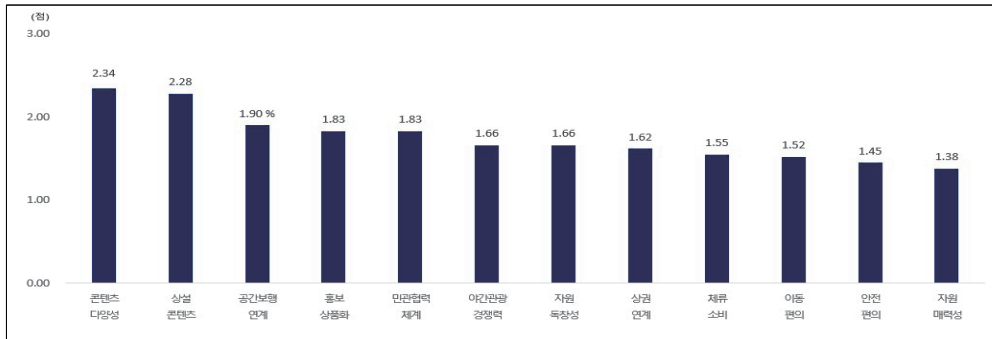
- 12개 야간관광 여건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정책적 중요도 평균은 4.53점인 반면 현재 수준은 2.78점으로 1.75점의 격차가 나타남
- 중요도에서는 ‘야간관광 자원의 매력성’과 ‘공연·체험·투어 등 콘텐츠 다양성’이 각각 4.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야간관광 자원의 독창성’도 4.72점으로 높게 평가됨
- 반면 현재 수준은 ‘야간관광 자원의 매력성’이 3.38점, ‘자원의 독창성’이 3.0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연중·정기 상설 야간콘텐츠 충분성’은 2.31점, ‘공연·체험·투어 등 콘텐츠 다양성’은 2.41점으로 낮게 나타남

<표 4-3> 김해시 야간관광 여건 중요도 및 현재 수준

평가항목	중요도	현재 수준	격차
야간관광 자원의 매력성	4.76	3.38	1.38
야간관광 자원의 독창성	4.72	3.07	1.66
공연·체험·투어 등 콘텐츠 다양성	4.76	2.41	2.34
연중·정기 상설 야간콘텐츠 충분성	4.59	2.31	2.28
거점 간 보행동선 및 공간적 연계성	4.38	2.48	1.90
야간 이동 편의성	4.38	2.86	1.52
야간 안전성과 편의성	4.41	2.97	1.45
야간 체류 및 소비 여건	4.52	2.97	1.55
지역상권과 관광콘텐츠 연계성	4.48	2.86	1.62
정보·홍보·관광상품 판매 수준	4.38	2.55	1.83
행정·공공·민간·상인 협력체계	4.48	2.66	1.83
김해시의 전반적인 야간관광 경쟁력	4.45	2.79	1.66
평균	4.53	2.78	1.75

- 중요도와 현재 수준의 격차는 콘텐츠 다양성(2.34점)과 상설 야간콘텐츠 충분성(2.28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거점 간 보행동선 및 공간적 연계성(1.90점), 정보·홍보·관광상품 판매와 협력체계(각 1.83점)가 뒤를 이음

- 반면 자원의 매력성과 독창성은 현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전문가들이 김해의 문제를 야간관광에 활용할 자원 자체의 부족보다, 보유자원을 야간에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전환하고 이를 정례화·상품화·연결하는 구조의 부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주) 중요도와 현재 수준 격차로 점수가 클수록 차이가 존재함

(그림 4-1) 김해시 야간관광 여건 중요도-현재수준 격차

(2) 중요도-현재 수준 IPA 분석

■ 중점개선 영역

- ‘공연·체험·투어 등 콘텐츠 다양성’과 ‘연중·정기 상설 야간콘텐츠 충분성’이 중요도는 높지만 현재 수준은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 위치함
- 두 항목은 중요도-현재 수준 격차에서도 각각 2.34점과 2.28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 김해 야간관광의 우선과제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자원을 야간 체험·공연·투어 등으로 콘텐츠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해석됨

■ 유지강화 영역

- ‘야간관광 자원의 매력성’과 ‘자원의 독창성’은 중요도와 현재 수준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 해당함
- 특히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봉황동유적 등 가야 역사문화자원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김해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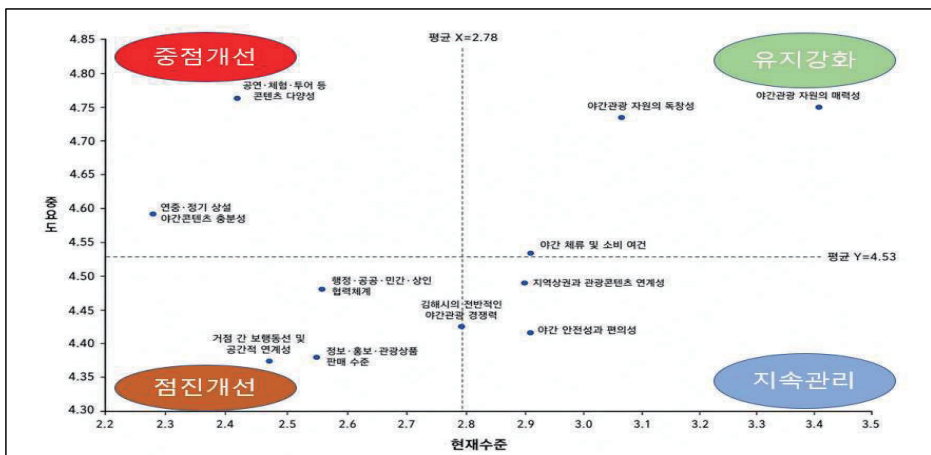
운 테마를 별도로 도입하기보다 가야 역사문화의 장소성과 이야기를 김해만의 야간관광 경험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함

□ 점진개선 영역

- 거점 간 보행동선, 정보·홍보·관광상품 판매, 민관협력체계 등은 현재 수준이 낮고 중요도도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 위치함
- 대표 콘텐츠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관광객의 이동·정보탐색·상품구매 및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기반요소이므로, 단순한 저우선 순위 사업으로 보기보다 대표 콘텐츠 구성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원 체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지속관리 영역

- 야간 이동 편의성, 안전·편의성, 체류·소비 여건, 지역상권 연계성, 전반적 야간관광 경쟁력 등은 현재 수준이 전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중요도는 평균보다 다소 낮은 지속관리 영역으로 나타남
- 다만 해당 항목의 중요도 역시 모두 4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정책적 중요성이 낮다는 의미보다는, 콘텐츠 다양성과 상설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의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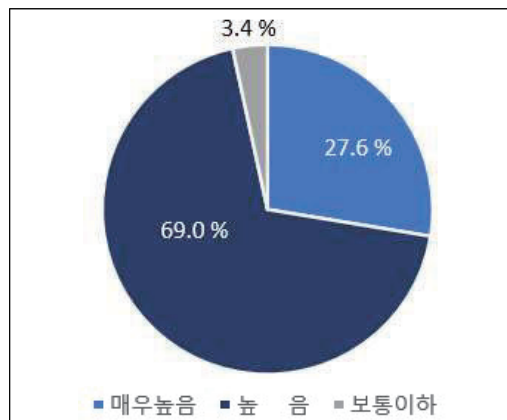
자료)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4-2) 김해시 야간관광 중요도-현재수준 IPA 분석결과

2) 야간관광 발전 가능성 및 권역별 잠재력

(1) 전문가가 인식하는 김해시 야간관광 발전 가능성

- 김해시 야간관광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의 69.0%가 ‘높음’, 27.6%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여, 전체의 96.6%가 ‘높음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4.24점으로 나타남
- 이는 실제 향후 관광객 증가 규모를 예측한 결과가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공간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콘텐츠 개발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야간관광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인식을 의미함
- 따라서 김해 야간관광은 현재 완성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기보다, 가야 역사문화자원과 원도심, 기존 관광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콘텐츠화하고 연결할 경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4-3) 김해시 야간관광 발전 가능성

(2) 권역별 잠재력 및 육성 우선순위

- 권역별 발전 잠재력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가야고도 도심권이 4.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원도심 미식·문화권 4.28점, 분성산 야간체험권 4.10점, 장유 생활관광권 3.28점, 낙동강·생태레저권 3.10점의 순으로 나타남
- 가야고도 도심권은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봉황동유적·국립김해박물관 등 대표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되어 있고 경전철역 및 원도심 상권과 인접해 있어 콘텐츠·보행·상권을 하나의 야간관광 경험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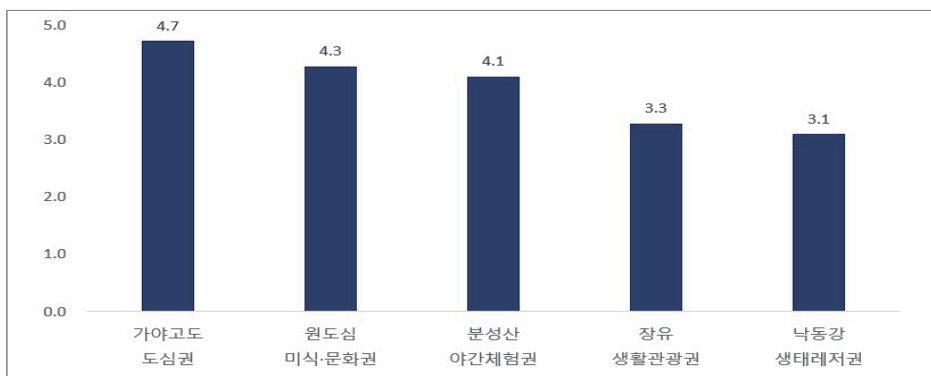
- 원도심 미식·문화권은 역사문화 관광 이후 음식·카페·시장·쇼핑 등 소비활동을 연결하는 확장권역으로, 분성산 야간체험권은 김해가야테마파크·김해천문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전망·천문·체험형 보완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장유 생활관광권과 낙동강 생태레저권은 단기적으로 사업을 분산하기보다 권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함
- 따라서 전문가 평가를 종합하면 가야고도 도심권을 핵심거점으로 우선 육성하고, 원도심을 체류·소비 확장권역, 분성산권을 체험형 보완거점으로 연결하는 선택과 집중형 공간전략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표 4-4> 권역별 야간관광 잠재력과 육성 우선순위

(단위: 점, %)

권역	잠재력 평균	1순위 선택률 (응답자 기준)	1·2순위 선택구성비 (선택건수 기준)
가야고도 도심권	4.72	82.8	44.8
원도심 미식·문화권	4.28	10.3	29.3
분성산 야간체험권	4.10	6.9	20.7
장유 생활관광권	3.28	0.0	1.7
낙동강 생태레저권	3.10	0.0	3.4

주) 1순위 선택 비율은 전체 응답자 29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1·2순위 종합 비중은 전체 선택건수 58건을 기준으로 산정함



(그림 4-4) 권역별 야간관광 잠재력

3)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평가

(1) 전략별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

- 전략별 중요도에서는 ‘가야 역사문화자원 기반 야간관광 브랜드 구축’이 4.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표 야간콘텐츠 육성’과 ‘지역상권·미식·시장·숙박 연계 강화’가 각각 4.45점으로 나타남
- 실행 가능성에서도 ‘가야 역사문화자원 기반 야간관광 브랜드 구축’이 4.69점으로 가장 높아, 전문가들은 김해가 이미 보유한 가야 역사문화자원을 야간관광 브랜드로 전환하는 전략을 필요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별 중요도 및 실행 가능성

(단위: 점)

전략	중요도	실행 가능성	격차
가야 역사문화자원 기반 야간관광 브랜드 구축	4.79	4.69	0.10
대표 야간콘텐츠 육성	4.45	4.31	0.14
지역상권·미식·시장·숙박 연계 강화	4.45	4.00	0.45
전담조직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4.38	3.93	0.45
야간경관·보행공간·포토스팟 개선	4.34	4.17	0.17
통합홍보·관광상품·플랫폼 구축	4.34	4.10	0.24
야간 교통·주차·안전체계 개선	4.14	3.93	0.21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3.90	3.69	0.21

주) 중요도 및 실행 가능성 5점 만점

- 특히 ‘지역상권·미식·시장·숙박 연계 강화’와 ‘전담조직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은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 간 격차가 각각 0.45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개방형 의견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상인의 참여와 영업시간 조정, 관광콘텐츠와 상권 간 상품구성, 관련 부서·기관 간 역할분담, 전문인력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 실제 추진과정에서 조정해야 할 요인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들 전략은 단순히 우선순위를 낮추기보다, 콘텐츠 사업과 달리 민간참여 구조, 역할분담, 인센티브, 운영주체 등 실행조건을 먼저 구체화하는 접근이 필요함



자료)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4-5)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의 중요도-실행 가능성 분포

(2) 정책역량 및 자원 배분

- 전문가에게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역량과 재원을 총 100%로 가정하여 분야별 적정 배분비율을 조사한 결과, 콘텐츠 개발이 32.2%로 가장 높았으며, 공간·경관 개선 21.0%, 상권·숙박 연계 17.1%, 거버넌스·마케팅 15.9%, 이동·안전환경 개선 13.8%의 순으로 나타남
- 콘텐츠 개발과 공간·경관 개선을 합한 비중은 53.2%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대표 야간콘텐츠 확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간환경 조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역량과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이는 실제 예산편성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인식하는 정책 분야별 상대적 투자 우선도를 나타낸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별 소요예산 및 재정여건과 구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표 4-6> 정책역량 및 재원의 적정 배분 비중

(단위: %)

투자 분야	평균 배분비중
콘텐츠 개발	32.2
공간·경관 개선	21.0
상권·숙박 연계	17.1
거버넌스·마케팅	15.9
이동·안전환경 개선	13.8
합계	100.0

4) 핵심 추진사업 우선순위

- 10개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중요도·시급성·실행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봉황동유적을 연결하는 가야 야간 스토리투어’가 중요도 4.66점, 시급성 4.69점, 실행 가능성 4.72점으로 모든 평가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순위별 선택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에서도 가야 야간 스토리투어가 5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야간 미식투어로드 및 나이트마켓 34점, 가야의 거리·해반천·왕릉길 야간 보행관광축 25점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가야 야간 스토리투어는 기존 역사문화자원과 해설·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교적 적은 시설투자로 시범운영이 가능하고, 김해의 가야 서사를 야간관광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 콘텐츠의 우선적인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야간 미식투어로드 및 나이트마켓은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지역상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며, 야간 보행관광축은 역사문화자원과 원도심 상권을 공간적으로 연결하는 기반사업이라는 점에서 대표 콘텐츠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산야행·가야문화축제 콘텐츠 정례화는 순위 가중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중요도 4.41점, 시급성 4.31점으로 평가됨
 - 새로운 대형 행사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행사에서 경쟁력이 확인된 콘텐츠를 선별하여 주말·계절형 프로그램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합패스 및 체류상품, 1박형 야간관광 프로그램, 광역 야간관광 상품 등은 중요도·시급성·실행 가능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순위 선택에서도 상위사업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따라서 대표 콘텐츠와 핵심 야간관광 동선을 우선 구축한 이후 체류상품화와 광역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적절함

<표 4-7> 핵심 추진사업 평가 및 순위

(단위: 점)

추진사업	중요도	시급성	실행 가능성	종합평균	순위 가중점수
가야 야간 스토리투어	4.66	4.69	4.72	4.69	58
야간 미식투어로드 및 나이트마켓	4.45	4.38	4.10	4.31	34
가야의 거리·해반천·왕릉길 야간 보행관광축	4.24	4.34	4.21	4.26	25
국가유산야행·가야문화축제 콘텐츠 정례화	4.41	4.31	4.07	4.26	14
상설 야간공연·미디어 콘텐츠	4.31	4.14	3.86	4.10	14
분성산권 야간 셔틀 및 체험상품	4.17	3.97	3.90	4.01	12
통합패스 및 체류상품	4.03	3.90	3.76	3.90	4
야간관광 디지털 플랫폼	4.03	3.76	3.86	3.89	4
1박형 야간관광 프로그램	3.86	3.72	3.83	3.80	4
광역 야간관광 상품	3.76	3.55	3.34	3.55	5

주) 중요도·시급성·실행 가능성은 5점 만점이며, 종합평균은 세 평가항목의 산술평균임. 순위 가중점수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적용하여 산출함

3 | 김해시 야간관광 종합진단

- 전문가 조사와 김해시 야간관광 여건 분석을 종합하면, 김해는 가야 역사 문화자원을 비롯하여 야간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이를 대표적인 야간관광 경험으로 전환하고 관광거점·지역상권이 동체계와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는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됨
- 특히 전문가 조사에서는 대표 브랜드와 핵심 콘텐츠 부족, 참여형·상설 콘텐츠 부족이 주요 문제로 제시되었으며, IPA에서도 콘텐츠 다양성과 상설성이 중점개선 영역으로 나타남
- 또한 공간적 연결성, 상권·숙박 연계, 민관협력 등은 콘텐츠를 실제 체류와 소비로 확장하기 위한 주요 개선요인으로 확인됨
- 이에 김해시 야간관광의 핵심 이슈를 대표성, 연결성, 경제성, 지속가능성의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진단함

1) 대표성: 자원은 있으나 '김해의 밤'을 대표하는 콘텐츠는 부족

- 김해는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봉황동유적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가야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원이 밤에 김해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대표적인 야간관광 경험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 조사에서도 확인되어, 야간관광 브랜드 및 핵심 콘텐츠 부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으며 공연·체험·투어 등 콘텐츠 다양성과 연중·정기 콘텐츠 역시 중요도에 비해 현재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새로운 시설이나 대규모 행사를 추가하기보다 가야왕도 김해의 정체성을 야간관광 브랜드로 구체화하고, 수로왕·허왕후 등 가야의 역사와 기존 야간행사 콘텐츠를 정기적인 공연·체험·투어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표 4-8> 김해시 야간관광의 시급한 문제점

(단위: 명, %)

문제점	1~3순위 빈도	비중	가중점수*
야간관광 브랜드 및 핵심 콘텐츠 부족	25	28.7	70
공연·체험·투어 등 참여형 콘텐츠 부족	11	12.6	22
상설 야간콘텐츠 부족	9	10.3	18
야간경관·조명·포토스팟 부족	8	9.2	14
거점 간 공간 연계 및 보행동선 미흡	7	8.0	13
음식점·카페·쇼핑시설 연계 부족	9	10.3	12
야간 이동 및 귀가수단 불편	4	4.6	7
숙박시설·숙박 연계상품 부족	5	5.7	6
부서·기관 간 협업체계 미흡	3	3.4	5

주) 1~3순위 빈도는 복수응답 결과이며, 비중은 전체 선택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가중점수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적용하여 산출함

2) 연결성: 개별 관광자원을 하나의 야간관광 경험으로 연결하는 구조 부족

- 현황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봉황동유적 등 주요 자원은 비교적 인접해 있으나, 관광객이 이를 하나의 연속된 야간관광 공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보행동선과 이동·안내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 전문가 조사에서도 관광거점 간 보행동선과 공간적 연계, 야간 이동편의 및 관광정보 제공이 주요 개선과제로 나타나 개별 관광자원의 매력보다 이를 연결하는 이용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됨
- 따라서 가야고도 도심권을 중심으로 보행동선·교통·안내·안전을 통합적으로 개선하여 주요 관광거점을 하나의 야간관광 코스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3) 경제성: 야간 방문수요가 지역 내 체류와 소비로 연결되는 구조 미흡

- 축제기간 야간 방문인구 증가 등 야간관광 수요 가능성은 확인되었으나, 이를 원도심 상권·미식·숙박 등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는 구조는 아직 충분하지 않음
- 전문가 조사에서도 지역상권·미식·시장·숙박 연계의 정책적 중요성은 높게 평가된 반면 실행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관광객 유입과 지역상권 매출 간 연결구조 마련이 주요 실행과제로 나타남

- 따라서 가야고도 도심권의 관광동선을 봉황대길·동상동 등 원도심 상권과 연결하고, 미식·쇼핑·숙박·관광상품을 단계적으로 결합하여 야간 방문을 실제 체류와 소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4) 지속가능성: 개별사업 중심에서 상시 협력·관리체계로의 전환 필요

- 야간관광은 콘텐츠뿐 아니라 국가유산, 교통, 안전, 경관, 상권, 주민생활환경 등이 함께 작동하는 정책영역으로 개별 부서나 기관 중심의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 전문가 조사에서도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중요성에 비해 실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실제 협력체계 구축사이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부서·기관·지역상인·관광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소음·빛공해·교통·안전 등 지역수용성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4 | 핵심 정책과제 및 전략 도출

1)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

- 야간관광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3개까지 복수응답 하도록 한 결과, ‘김해시 차원의 명확한 비전과 중장기 계획’이 21명(72.4%)으로 가장 높았으며, 안정적 예산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 연계 13명(44.8%), 김해문화관광재단 등 전문 운영기관의 역할 강화 12명(4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야간관광의 지속성이 개별 행사나 콘텐츠의 성과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 안정적 재원, 전문 운영기관, 부서 간 협업 및 민간참여가 결합된 추진체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중앙정부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 역시 콘텐츠 개발뿐 아니라 이동·숙박·식음·치안 등 종합적인 야간관광 여건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콘텐츠 개발·운영, 기반구축, 홍보·마케팅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표 4-9> 지속적인 야간관광 추진을 위한 주요 조건

(단위: 명, %)

추진조건	인원	비중
김해시 차원의 명확한 비전과 중장기 계획	21	72.4
안정적인 예산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 연계	13	44.8
김해문화관광재단 등 전문 운영기관 역할 강화	12	41.4
문화·관광·교통·안전·상권 부서 간 협업	9	31.0
상인회·주민·지역공동체 참여와 수용성	9	31.0
민간 관광사업자 및 전문기획자 참여	8	27.6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5	17.2
야간 교통·안전·편의시설 우선 개선	4	13.8
관광상품 유통 및 홍보마케팅 전문성 강화	4	13.8

주) 응답자 29명을 대상으로 한 3개 복수응답 결과임

- 사업 추진방식은 ‘김해시와 김해문화관광재단의 공동 추진’이 51.7%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공공기관·민간이 참여하는 야간관광 협의체 구성 20.7%, 김해문화관광재단의 통합운영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김해시 담당부서의 직접 총괄·운영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행정의 개별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보다 김해시는 정책·예산·제도 및 부서 간 조정을 담당하고,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콘텐츠 기획·운영·상품화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역할분담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진단 및 정책적 시사점

- 앞서 도출된 대표성·연결성·경제성·지속가능성의 네 가지 핵심 이슈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 종합진단과 정책적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표 4-10> 김해시 야간관광 종합진단 및 정책적 대응방향

구분	종합진단	정책적 대응방향
대표성	가야 역사문화자원의 매력성과 차별성은 높으나 이를 상징하는 대표 야간브랜드와 정기·상설 콘텐츠 부족	가야 역사문화 기반 통합브랜드와 앵커 콘텐츠 구축, 기존 행사 우수 콘텐츠의 정례화
연결성	주요 관광자원이 인접해 있으나 거점 간 보행·교통·정보체계가 분절되어 연속적인 관광경험 형성 미흡	가야고도 도심권 중심 야간 보행관광축 구축 및 이동·안내체계 연계
경제성	야간방문이 미식·상권·쇼핑·숙박 등 지역소비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함	원도심 상권과 야간관광 동선을 연결하고 미식·시장·숙박·상품 결합
지속가능성	사업 간 협업과 안정적 운영체계가 미흡하고 소음·빛·교통 등 부정적 영향 관리 필요	시·재단·민간 협력체계 구축, 안정적 자원·성과관리·주민수용성 확보

3) 단계적 추진방향

- 종합진단 결과, 김해시 야간관광은 초기부터 다수의 사업과 권역을 동시에 확대하기보다 가야 역사문화 기반의 대표 브랜드와 앵커 콘텐츠를 우선 구축한 후 공간적 연결, 지역소비, 체류상품 및 운영체제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접근이 필요함

▣ 1단계: 대표성 확보

- 가야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김해 야간관광의 통합브랜드와 대표 콘텐츠를 구축하고, 가야고도 도심권을 핵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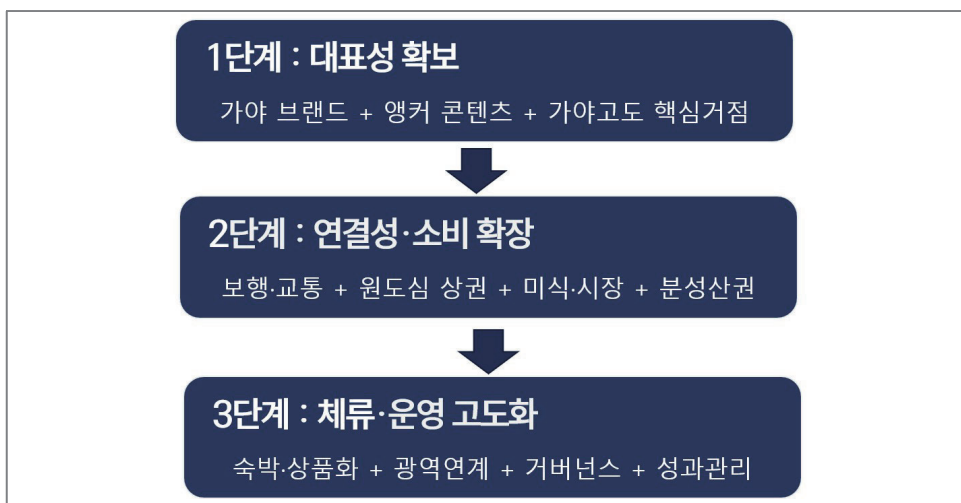
-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봉황동유적 등을 연결하는 야간 스토리투어를 소규모·예약형으로 우선 운영하고, 국가유산야행·가야문화축제 등 기존 행사에서 경쟁력이 확인된 콘텐츠를 주말·계절형 프로그램으로 정례화함

□ 2단계: 연결성 및 소비 확장

- 대표 콘텐츠가 운영되는 관광거점을 보행동선과 이동·안내체계로 연결하고, 봉리단길·동상동 등 원도심 상권과 연계하여 야간관광 활동이 미식·쇼핑 등 지역소비로 이어지도록 함
- 분성산권의 김해가야테마파크·김해천문대 등 기존 관광시설을 보완거점으로 연계하고, 원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미식·시장·숙박 연계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 3단계: 체류상품화 및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정착

- 핵심 콘텐츠와 야간관광 동선이 안정화된 이후 통합패스, 숙박 연계상품, 광역 관광상품 등으로 상품화를 확대하여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증대함
- 동시에 김해시와 김해문화관광재단을 중심으로 상시 협력체계와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상인·관광사업자의 참여와 소음·빛·교통·안전 등 지속가능성 관리를 강화함



(그림 4-6) 김해시 야간관광의 단계적 확장 구조

4) 핵심 전략과제 도출

- 이상의 여건분석과 전문가 조사 및 종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대표성·연결성·경제성·지속가능성의 네 가지 방향으로 구조화하고, 이를 제5장의 4대 추진전략으로 연계함

<표 4-11> 김해시 야간관광 핵심 전략과제 도출

핵심이슈	핵심 전략과제	추진전략
대표성	가야 역사문화 기반 대표 야간관광 브랜드·앵커 콘텐츠 구축	가야 역사 기반 야간 특화 콘텐츠 고도화
연결성	관광거점 간 보행·이동·정보 연결성 강화	야간 접근성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경제성	미식·상권·숙박·상품을 연계한 야간관광 소비구조 구축	로컬상권 연계 및 야간관광 소비 활성화
지속가능성	시, 재단, 민간 협력과 성과관리·주민수용성 체계 구축	민관협력 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성 확보

- 김해시 야간관광 정책은 새로운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기보다 기존 가야 역사문화자원을 밤에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전환하고, 이를 관광거점·보행동선·지역상권·교통 및 숙박과 연결하여 체류와 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단순히 ‘밤에 볼거리가 있는 도시’를 넘어 관광객이 밤에 경험하고, 걷고, 소비하고, 머무를 수 있는 야간관광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관협력 및 성과관리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을 정책적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V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방안

1 | 비전 및 정책목표

1) 전략 수립의 기본방향

- 김해시는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봉황동유적을 비롯한 가야 역사문화자원과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천문대, 분산성, 봉리단길·동상시장 등 야간관광으로 활용 가능한 역사·문화·자연·생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개별 자원의 매력성에 비해 야간시간대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공연·체험·투어 등의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 축제와 행사기간을 제외하면 연중 또는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됨
 - 전문가 조사에서도 야간관광 여건의 정책적 중요도는 평균 4.53점인 반면 현재 수준은 2.78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연·체험·투어 등 야간 콘텐츠 다양성’과 ‘연중·정기 상설 야간 콘텐츠의 충분성’이 우선적인 개선영역으로 나타남
- 또한 기존 야간관광 콘텐츠가 개별 행사와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야고도 도심권, 분성산권, 원도심 상권 등 주요 관광공간을 하나의 야간관광 경험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야간관광이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보행·교통, 관광정보, 안전, 음식·상권, 숙박 등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적인 관광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는 기존 관광자원의 야간 콘텐츠화, 행사형 콘텐츠의 정기·반복 운영 확대, 관람 중심에서 참여·체험 중심으로 전환, 관광거점 간 연결성 강화, 야간 방문을 체류와 지역소비로 연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공간적으로는 전 지역에 사업을 분산하기보다 야간관광 잠재력이 높은 가야고도 도심권을 핵심거점으로 우선 육성하고, 분성산권과 원도심 상권 등을 연계·확장하는 거점 집중·네트워크형 전략을 추진함

2) 비전 및 정책목표

- 김해시 야간관광의 비전은 「가야의 밤을 경험하고,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 김해」로 설정함
- 김해의 핵심 관광정책체인 가야 역사문화를 야간시간대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험을 지역 내 체류와 소비로 연결하는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것임
- 인접 대도시와의 높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방문객의 방문을 저녁시간대까지 연장하고,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는 체류소비형 관광구조로의 전환에 정책적 목표를 둠
- 이를 위해 정책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 대표성 강화: 김해만의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와 도시 이미지 구축
 - 연결성 강화: 주요 관광거점 간 보행·교통·정보·안전 등 야간관광 수용태세 개선
 - 체류·소비 확대: 야간관광과 미식·상관·숙박을 연계하여 지역 내 관광소비 확대
 - 지속가능성 확보: 민관협력과 제도·성과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3) 추진전략

- 비전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을 다음의 4개 영역으로 설정함
- 전략 1 「가야 역사 기반 야간 특화 콘텐츠 고도화」는 김해만의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를 구축함으로써 밤에 김해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둠
- 전략 2 「야간 접근성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은 관광거점 간 교통·안전체계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전략 3 「로컬상권 연계 및 야간관광 소비 활성화」는 야간관광 수요를 미식·쇼핑·숙박 등 지역 내 소비와 연결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관광소비를 확대함
- 전략 4 「민관협력 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성 확보」는 김해시와 관계기관 및 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및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함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5-1) 비전 및 4대 전략

2 | 전략 1: 가야 역사 기반 야간 특화 콘텐츠 고도화

1) 추진 필요성

- 김해 야간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조명이나 야간경관 조성보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가야왕도 김해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야간관광 콘텐츠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 전문가 조사에서도 ‘가야 역사문화자원 기반 야간관광 브랜드 구축’의 중요도는 4.79점, 실행 가능성은 4.69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음
- 따라서 수로왕과 허왕후, 금관가야, 철기문화, 해상교류 등 김해만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존 야간 콘텐츠를 하나의 브랜드와 관광경험으로 연결하고, 이를 대표적인 스토리투어와 정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공간적으로는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봉황동유적을 중심으로 한 가야고도 도심권을 핵심 야간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야테마파크·분산성·김해천 문대가 위치한 분성산권을 자연·과학·체험형 보완거점으로 연계함

2) 「가야의 밤, 김해」 통합 야간관광 브랜드 구축

- 김해국가유산야행, 가야문화축제, 대성동고분군 밤마실, 가야테마파크 야간 개장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야간 콘텐츠를 하나의 도시 이미지로 연결할 수 있는 김해 야간관광 통합 브랜드 체계를 구축함
- 통합브랜드는 별도의 명칭이나 BI를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가야의 밤’이라는 공통된 이야기를 공간·공연·투어·미식·상품·홍보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체계로 운영함
- 「가야의 밤, 김해」, 「GAYA NIGHT GIMHAE」 등의 브랜드 개념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서로 다른 장소와 프로그램을 개별 행사로 인식하기보다 하나의 김해 야간관광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

3) 「가야 달빛 스토리투어」 대표상품 육성

-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봉황동유적을 연결하는 「가야 달빛 스토리투어」를 김해 야간관광의 대표적인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육성함

- 기존 국가유산과 보행로를 활용하여 대규모 신규 시설투자를 최소화하고, 수로왕·허왕후, 가야 건국, 고분문화, 철기문화와 해상교류 등 김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역사서사를 야간 체험상품으로 전환함
- 초기에는 금·토요일 또는 특정 요일을 중심으로 예약형 소규모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이용객 만족도와 운영성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정례화·유료화를 추진함
 - 문화관광해설사·전문 배우·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극형·인물형 해설
 - 국가유산 보존환경을 고려한 저조도 조명·음향·영상 등 최소 개입형 연출
 - 무선 헤드셋 등을 활용한 소음 최소화형 야간해설
 - 야간 한정 체험·기념품·미식쿠폰 등 결합
- 투어 종료지점을 봉황대길 등 원도심 상권과 연결하여 역사문화 체험 이후 식사·카페·쇼핑 등의 소비활동으로 이어지는 야간관광 동선을 형성함

4) 축제·야행 대표 콘텐츠의 정례화

- 새로운 대규모 야간행사를 반복적으로 신설하기보다 김해국가유산야행, 가야문화축제, 대성동고분군 밤마실 등 기존 사업에서 운영 경험과 관광객 반응이 축적된 콘텐츠를 선별하여 주말형·계절형 정기 프로그램으로 전환함
 - 국가유산야행의 해설·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소규모 정기 프로그램으로 재구성
 - 가야문화축제의 대표 야간공연·퍼레이드·체험 콘텐츠 활용
 - 대성동고분군 밤마실의 장소특화 프로그램 정례 운영
 - 지역예술인·가야금 공연과 야간 스토리투어 연계
 - 계절별 프로그램 일부 변경을 통한 재방문 콘텐츠 구성
- 월 1~2회 또는 특정 주말 등 관광객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운영일정을 제공하여 축제기간 이외에도 가야고도 도심권에서 야간관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5) 분성산 야간체험 콘텐츠 고도화

- 가야테마파크, 분산성, 김해천문대가 위치한 분성산 일원은 가야고도 도심권과 차별화되는 자연·역사·과학체험형 야간관광 보완거점으로 육성함

- 2027~2028년 추진 예정인 「분성산 하늘길 야간 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가야테마파크·분산성·김해천문대의 개별 콘텐츠를 연결하고, ‘빛·역사·별’을 주제로 한 분성산 야간체험 코스를 구축함
 - 가야테마파크 야간개장 및 빛축제와 분산성 역사 스토리텔링 연계
 - 김해천문대 천체관측 및 별자리 해설 연계
 - 하늘길을 활용한 역사해설·야간산책·천체관측 체험
 - 계절별 천문현상, 빛축제, 야간공연 등을 활용한 예약형·테마형 프로그램 운영
- 특히 야간경관시설 자체를 관광목적으로 하기보다 가야테마파크·분산성·김해천문대를 연결하는 콘텐츠의 배경과 이동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설과 프로그램이 결합된 야간관광 경험을 제공함
- 이를 통해 가야고도 도심권의 역사문화형 야간관광과 분성산권의 자연·과학·체험형 야간관광이 상호 보완하는 공간구조를 형성함

3 | 전략 2: 야간 접근성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1) 추진 필요성

- 야간관광은 콘텐츠의 매력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야간시간대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관광수용태세가 함께 구축되어야 함
- 가야고도 도심권의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봉황동유적, 국립김해박물관, 봉리단길 등은 비교적 인접해 있으나, 관광객이 이를 하나의 연속된 야간 관광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행동선과 안내·이동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 또한 가야테마파크·분산성·김해천문대 등 분성산권은 도심권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야간시간대 관광거점 간 이동 편의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
- 전문가 조사에서도 거점 간 보행동선, 관광정보, 야간교통 및 안내체계가 주요 개선과제로 나타났으며, 야간 셔틀, 관광택시, 주차정보, 통합지도, 다국어 안내 및 보행안전 개선 등이 제안됨
- 대규모 신규 인프라를 우선 조성하기보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낭만가야 관광벨트, 분산산 하늘길 야간 명소화 사업 등 기존·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실제 야간 콘텐츠가 운영되는 공간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보행·교통·정보·안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함

2) 「가야고도 나이트 워크」 야간 보행관광축 조성

-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봉황동유적과 원도심 상권을 하나의 관광경험으로 연결하는 가야고도 도심형 야간 보행관광축을 조성함
 - 기본동선: 박물관역·수로왕릉역 → 국립김해박물관·대성동고분군 → 수로왕릉 → 봉황대길 → 동상동 원도심
 -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프로그램에 따라 단축형·순환형 코스로 운영
 - 박물관역과 수로왕릉역을 대중교통 진입거점으로 활용
- 보행축은 단순한 이동로가 아니라 수로왕, 가야 고분문화, 철기문화, 해상교류 등 가야의 역사가 공간적으로 이어지는 스토리형 야간 보행관광 코스로 구성함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봉황대길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수로왕릉에서 봉황대길로 이어지는 구간의 보행환경과 야간경관을 단계적으로 개선함
- 주요 구간에는 통합 사인체계, 보행유도조명, 휴식공간, 포토포인트 및 QR 기반 해설정보 등을 제공하되, 국가유산 주변은 과도한 경관조명을 지양하고 저조도·간접조명 등을 활용하여 역사경관과 보행안전을 함께 고려함
- 보행축의 주요 동선을 봉황대길·동상동 등 원도심 상권과 연결하여 역사문화 체험이 식사·카페·쇼핑 등의 야간 소비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가야 달빛 워킹 챌린지 운영

- 「가야고도 나이트 워크」를 실제 관광객 참여로 활성화하기 위한 계절형 프로그램으로 「가야 달빛 워킹 챌린지」를 운영함
- 수로왕릉, 수릉원, 대성동고분군, 가야의 거리, 해반천 등 도심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3~5km 내외의 야간 걷기 코스를 구성하고, 주요 지점에서 역사해설·미션·소규모 공연·포토포인트 등을 경험하도록 함
- 봄·가을 등 야간 보행에 적합한 시기를 중심으로 시즌제로 운영하고 국가유산야행·가야문화축제와 개최시기를 차별화하여 기존 대형행사가 없는 시기의 야간 방문을 보완하는 참여형 콘텐츠로 활용함



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dgdonggu>), 해운대구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udpr>)

(그림 5-2) 달빛걷기 개최 사례

3) 야간 관광거점 연계 교통체계 구축

- 야간시간대의 대중교통 운행빈도 감소와 관광지 간 이동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주요 야간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관광교통 서비스를 마련함
- 기존 시티투어 및 향후 「낭만가야 관광벨트」의 친환경 시티투어 사업 등과 연계하여 가야고도 도심권과 가야테마파크·분성산·김해천문대를 연결하는 야간 관광교통 운영 방안을 검토함
- 상시적인 신규 노선을 우선 도입하기보다 국가유산야행, 가야문화축제, 가야테마파크 야간개장 등 실제 야간수요가 발생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중심으로 예약형·기간형 교통서비스를 시범 운영함
 - 가야고도 도심권 ↔ 가야테마파크·김해천문대 야간 순환셔틀
 - 소규모 방문객을 위한 예약형 관광택시 또는 소규모 교통서비스
-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용수요, 운행시간, 노선별 이용률 등을 분석하여 정례화 여부를 검토함

4) 스마트 야간관광 정보·예약 서비스 구축

- 별도의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보다 기존 김해 관광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하여 야간관광 콘텐츠, 교통·주차, 상권, 안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 주요 야간관광 콘텐츠의 운영일·운영시간·예약 여부와 교통, 주차, 주변 음식점 등의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봉황동유적 등 주요 관광거점에는 QR 기반 모바일 안내체계를 활용하여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다국어 해설, 지도, 이동 경로 및 주변 상권 정보를 제공함
- 장기적으로 프로그램 예약 및 QR 이용정보 등을 축적하여 주요 이용시간과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콘텐츠 운영, 교통 및 상권연계 개선에 활용함

4) 야간 안전·안심 관광환경 구축

- 주요 야간관광 구역을 대상으로 보행조명, CCTV, 보행환경 등 안전·편의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야간 보행관광축을 중심으로 안심동선을 설정함

- 모바일 지도를 통해 공영주차장, 화장실, 대중교통, 편의시설 등의 위치와 귀가 정보를 제공하여 야간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임
- 주요 음식점·카페·숙박시설 가운데 참여 의사가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안심거점을 시범 운영하여 길찾기, 긴급연락 등 기본적인 방문객 지원기능을 제공함
- 행사와 야간 프로그램 운영 시 경찰·소방·관광시설·지역상인 등과 비상연락 체계를 공유하고 주요 보행구간과 혼잡지역을 사전에 점검함
- 중장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와 사고·민원 데이터를 축적하여 위험구간과 취약시간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이터 기반 야간관광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

4 | 전략 3: 로컬상권 연계 및 야간관광 소비 활성화

1) 추진 필요성

- 야간관광의 지역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야간 방문객 증가 자체보다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이를 음식·카페·쇼핑·숙박 등 지역 내 실질적인 관광소비로 연결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김해는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 등 주요 역사문화자원 주변에 봉황대길·동상시장·글로벌푸드타운 등 생활·미식공간이 분포하고 있어 역사문화관광과 지역상권을 공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 특히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을 통해 봉황대길을 중심으로 관광브랜드와 관광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가야고도 도심권의 관광수요를 원도심 상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도 확대되고 있음
- 전문가 조사에서도 지역상권·미식·시장·숙박 연계 강화의 중요도는 4.45점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나 실행 가능성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관광객 유입이 실제 상권 이용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구조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남
- 따라서 가야고도 도심권의 역사문화관광과 원도심 상권을 연결하는 야간경제 거점을 육성하고, 미식·쇼핑·숙박 및 스포츠형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결합하여 야간 방문수요를 지역 내 체류와 소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둠

2) 봉황대길 중심 원도심 야간경제 거점 육성

- 수로왕릉과 봉황동유적 사이에 위치한 봉황대길을 역사문화관광과 지역상권을 연결하는 가야고도 도심권의 핵심 야간경제 거점으로 육성함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봉황대길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 등을 방문한 관광객이 식음·쇼핑·문화활동을 연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야간 체류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함
 - 수로왕릉, 봉황대길, 봉황동유적을 연결하는 야간 보행·소비동선 구축
 - 음식점·카페·공방·소규모 문화공간 등 기존 상권을 활용한 야간 이용공간 확대
 - 주말 및 야간 콘텐츠 운영일을 중심으로 팝업스토어·로컬마켓 등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 국가유산야행·가야 달빛 스토리투어 등 주요 야간 콘텐츠와 상권 이용 연계

- 별도의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관광시설을 신규 조성하기보다 기존 상권을 활용하여 역사문화거점에서 발생한 관광수요가 식음·쇼핑 등의 소비활동으로 전환되는 연결공간으로 봉황대길의 기능을 강화함

3) 야간 미식·상권 활성화

▣ 김해 '밤맛로드' 조성

- 김해의 지역음식과 원도심 상권을 야간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김해 밤맛로드」를 조성하여 관광지 관람 이후의 식음활동을 하나의 야간관광 경험으로 확장함
- 뒷고기를 비롯한 지역음식과 디저트·카페 등을 중심으로 참여업소를 발굴하고, 관광객의 관심과 동선에 따라 다양한 테마형 미식코스를 구성함
 - 가야왕도 밤맛: 가야고도 도심권 관광 + 지역 대표음식
 - 김해 로컬푸드: 전통시장·지역음식·생활문화 체험
 - 봉황대길·봉리단길 디저트: 카페·디저트·야간 산책 연계
- 주요 역사문화관광과 뒷고기 음식점, 봉황대길·동상시장 등을 연결하여 관광, 식사, 카페·쇼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야간 미식관광 코스를 구축함
- 운영시간, 대표메뉴, 위치, 관광지와의 이동거리 등을 야간관광 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관광객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운영함

▣ 시즌형 나이트 푸드마켓 운영

- 상설 대규모 야시장을 신규 조성하기보다 기존 전통시장·골목상권 및 축제·행사와 연계하여 봄·가을 시즌제 또는 특정 주말형 나이트 푸드마켓을 운영함
- 지역 음식점, 전통시장 상인, 청년상인, 로컬크리에이터 등이 참여하는 먹거리·수공예·관광기념품 판매공간을 구성하고, 소규모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식음과 문화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야간공간으로 운영함
- 국가유산야행·가야문화축제 등 대규모 행사의 행사장 내부에 별도의 소비공간을 확대하기보다 인근 기존 상권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함

- 초기에는 상설 운영보다 특정 계절·주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방문객 수, 참여 점포 매출 및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운영 기간과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

4) 야간관광 소비·숙박 연계 강화

▣ 스테이 나이트 김해(Stay Night Gimhae) 숙박 연계상품 개발

- 야간관광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야간 콘텐츠 참여 이후 당일 귀가하는 방문객을 숙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관광상품 구조가 필요함
- 지역 숙박시설과 야간관광 콘텐츠, 미식·상권 등을 결합한 ‘스테이 나이트 김해’ 숙박 연계상품을 개발하여 야간관광 참여자의 지역 내 체류를 확대함
 - 역사문화형: 숙박 + 가야 달빛 스토리투어 + 봉황대길 미식
 - 가족체험형: 숙박 + 가야테마파크 야간개장 + 김해천문대
 - 축제연계형: 숙박 + 국가유산야행·가야문화축제 + 지역 미식
 - 스포츠형: 숙박 + 야간스포츠 + 지역관광
- 초기에는 모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보다 야간 콘텐츠 운영일 및 축제·스포츠대회 등 외부 방문객의 숙박수요가 예상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참여 숙박업소와 시범상품을 운영함
- 이후 이용실적과 숙박 전환효과 등을 분석하여 참여 숙박업소와 연계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확대함

▣ 야간소비 리워드 프로그램 운영

- 야간관광객의 소비를 개별 업소에 한정하지 않고 관광공간과 상권으로 확산하기 위해 참여점포 이용실적과 연계한 야간소비 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참여업소 가운데 일정 수 이상의 장소를 이용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소비를 한 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 체험권, 추가 혜택 등을 제공함
- 초기에는 대표 야간 콘텐츠와 인접 상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참여 점포와 관광객의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함
- 모바일 QR 등을 활용하여 방문·이용을 간편하게 인증하고, 축적된 자료는 참여업소 이용 현황과 관광객의 소비 동선을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함

5) 스포츠형 야간관광을 통한 체류·소비 수요 확대

- 스포츠형 야간관광은 역사문화·축제 중심의 기존 야간관광 콘텐츠를 보완하고, 특정 목적을 가진 외부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 확장형 야간관광 콘텐츠로 추진함
- 특히 스포츠형 콘텐츠는 상시 운영사업보다 기존 체육시설과 도시공간을 활용한 대화·이벤트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시설 투자를 최소화하고, 참가자와 동반자의 숙박·미식·관광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둠

■ 김해 나이트 파크골프 전국대회

- 최근 파크골프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참여가 확대되면서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스포츠관광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음
- 전국 단위 파크골프대회는 타 지역 참가자와 동반자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 경기 참가를 숙박·음식·관광 등 지역 내 소비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류형 관광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음
- 전국 단위의 「김해 나이트 파크골프 전국대회」 개최를 검토하고, 야간경기와 숙박·미식·지역관광을 결합한 스포츠형 야간관광 콘텐츠로 운영함
 - 현재 조만강 파크골프장은 18시부터 21시 30분까지 야간시설 이용이 가능하여 야간경기 운영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²²⁾
- 참가자와 동반자를 대상으로 숙박, 주요 관광지 등을 연계하여 경기 참가 전후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관광소비를 확대하는 스포츠관광 이벤트로 기획함



자료) 김해시 홈페이지(<https://www.gimhae.go.kr/>), 청도군 홈페이지(<https://www.cheongdo.go.kr/>)

(그림 5-3) 조만강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시설 및 청도군 야간골프 운영 사례

22) 김해시파크골프협회 홈페이지

□ 김해 나이트런 개최

- 야간 러닝은 기존 하천변 산책로와 도시 보행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러닝 참여와 음악·먹거리·관광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형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유형임
- 해반천 등 도심 수변공간을 활용한 「김해 나이트런」 개최를 검토하되, 실제 코스는 보행환경, 안전관리, 교통통제 가능성 및 행사 수용규모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정함
- 전문선수 중심의 기록경쟁형 대회보다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관광형 러닝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야간경관, 음악, 포토존, 지역 먹거리 등을 결합하여 스포츠 참여와 야간관광 경험을 연계함
- 행사 종료 후 봉황대길 등 원도심 상권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행사시간과 동선을 구성하고, 지역음식 및 참여상권 이용혜택 등을 제공하여 참가자의 소비활동을 지역상권으로 연결함
- 참가자 기념품과 완주기념품 등에 가야철기문화 등 김해의 지역 이미지를 활용하여 일반적인 러닝대회와 차별화된 지역성을 부여함



자료) 경북나드리(<https://tour.gb.go.kr/>), 나이트레이스(<https://www.nightracebusan.co.kr/>)

(그림 5-4) 나이트런 개최 사례

5 | 전략 4: 민관협력 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성 확보

1) 추진 필요성

- 야간관광은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교통, 경관, 지역상권 등 다양한 정책영역이 연계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정책분야로, 관광부서 또는 특정 기관의 개별 사업만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야간관광은 관광시설의 운영시간 조정, 교통, 생활환경 관리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련 부서와 김해문화관광재단, 지역상인, 관광사업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함
- 전문가 조사에서도 김해 야간관광의 지속 추진 조건으로 ‘김해시 차원의 비전과 중장기 계획’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으며, 사업 추진방식에서도 김해시와 김해문화관광재단의 공동 추진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 따라서 김해시는 정책방향 설정과 제도·예산 및 부서 간 조정을 담당하고,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콘텐츠 기획·운영과 홍보·마케팅을 담당하며, 지역상인·주민 등이 참여하는 역할분담형 민관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속적인 야간관광 정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생활환경과 국가유산·자연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운영 및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체계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야간관광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광부서를 중심으로 관계부서, 김해문화관광재단, 사업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김해시 야간관광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성·운영함
- 협의체는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치지보다 사업 발굴 및 기획, 사업 간 일정·공간 조정, 상권 및 민간 참여, 현장문제 해결, 사업성과 공유 등 야간관광 정책의 기획부터 운영·평가까지 참여하는 실행형 협력체계로 운영함
- 시 내부에는 관광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야간관광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부서 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야간관광 콘텐츠의 기획·운영, 민간사업자 및 지역상권과의 협력,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현장 실행기능을 담당하여 김해시와 역할을 분담함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상권 조직과 관광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공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구조에서 민간이 야간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지역관광 비즈니스 생태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함

3)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배경 및 필요성

- 야간관광 활성화는 야간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시설 운영시간, 교통·안전·관광정보, 지역상권과의 협력, 관광사업자 지원 등 다양한 행정영역과 민간 주체의 참여가 필요한 정책분야임
- 전국적으로 야간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 수용태세 개선, 민관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부서 간 협력, 민간 참여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야간관광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야간관광 사업 및 민관협력의 제도적 근거로 활용함
 - 야간관광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 야간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
 - 야간관광 콘텐츠·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 야간관광 수용태세 개선
 - 음식·전통시장·골목상권·숙박 등 지역상권과의 연계
 - 야간관광 홍보·마케팅 및 관광정보 제공
 - 관광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의 참여·지원
 - 민관협력위원회 또는 협의체 구성·운영
 -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특히 조례는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활성화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 및 지원, 민관협력, 성과관리로 이어지는 김해시 야간관광 정책 전반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함

4) 지속가능한 야간관광 운영체계 구축

- 야간관광 활성화가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국가유산·자연환경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광 활성화와 지역의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함
- 야간관광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빛공해, 소음, 교통·주차 혼잡, 쓰레기,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광공간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시간·조명·소음·안전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함
- 특히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 등 국가유산 공간에서는 대규모 조명이나 시설물 중심의 연출을 지양하고, 국가유산과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운영방식을 우선 적용함
- 관광객 집중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회차별 적정 인원과 사전예약제를 적용하고 운영시간과 소음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광활동 간 균형을 확보함
- 사업 운영과정에서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상인의 만족도 및 불편사항을 함께 파악하고, 민원·혼잡·안전·환경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다음 사업 운영에 반영함

5) 야간관광 성과관리 및 정책 환류체계 구축

- 개별 행사별 방문객 수와 만족도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김해시 야간관광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
- 성과지표는 사업의 추진단계와 정책목표에 따라 방문, 체류, 소비, 재방문·민간참여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관리함
 - 방문·인지: 야간 방문인구, 대표 콘텐츠 인지도,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체류·이용: 야간 체류시간, 프로그램 참여율, 주요 관광거점 이용
 - 소비·숙박: 관광소비액, 참여상권 이용, 숙박 전환

- 지속성·시장성: 재방문율, 민간 관광상품, 참여사업자
- 지역수용성: 주민·상인 만족도, 민원, 혼잡·안전·환경 관련 지표
- 이동통신 방문인구, 카드소비 등 빅데이터와 프로그램 예약·이용자료, 관광객 설문조사, 참여상권 및 주민조사 등을 활용하여 야간관광의 방문·체류·소비 및 지역수용성을 정기적으로 분석함
- 모든 사업에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기보다 개별 사업의 목적과 운영방식에 따라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주요 대표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사기준과 측정방식을 적용하여 연도별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성과분석 결과는 민관협력 협의체 및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 콘텐츠 개선 및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여 정책 환류체계를 구축함

6 | 단계별 추진방향

1) 단계별 추진방향

-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는 다수의 사업을 동시에 확대하기보다 대표 콘텐츠의 실증과 정책기반 구축, 콘텐츠 정례화 및 체류·소비 확대, 관광시장 및 민간 참여 확대의 단계적 방식으로 추진함
- 초기에는 가야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김해를 대표하는 야간관광 브랜드와 핵심 콘텐츠를 구축하고, 실제 관광수요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둠
- 이후 운영성과가 확인된 콘텐츠를 정례화하고 미식·상권·숙박·교통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함
- 중장기적으로는 가야고도 도심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야간관광을 분성산권과 스포츠형 야간관광 등으로 확장하고, 공공 주도의 사업에서 지역상인·관광사업자 등 민간의 상품개발과 운영 참여가 확대되는 구조로 전환함
- 이에 따라 단계별 정책목표를 1단계 ‘대표성 확보’, 2단계 ‘체류·소비 확대’, 3단계 ‘시장 확대·자립’으로 설정하고, 각 단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사업 범위와 추진 수준을 확대함

<표 5-1> 김해시 야간관광 단계별 추진방향

단계	정책목표	중점 추진내용
1단계 기반·실증	대표성 확보	통합 야간관광 브랜드 구축, 가야 달빛 스토리투어 시범운영, 가야고도 나이트 워크 조성, 야간관광 통합정보·QR 구축, 조례 및 민관협력체계 마련
2단계 정례·소비화	체류·소비 확대	대표 콘텐츠 정례화, 김해 밤맛로드, 시즌형 나이트 푸드마켓, Stay Night Gimhae, 야간 관광교통 연계
3단계 확장·민간화	시장 확대·자립	분성산권 야간관광 확대, 스포츠형 야간관광, 민간 관광상품 확대, 부산·경남 등 광역권 마케팅

2) 단계별 추진 로드맵

-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실행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 콘텐츠와 정책기반 구축 집중, 검증된 콘텐츠의 정례화와 체류·소비 연계 강화, 공간적·시장적 범위 확대 방식으로 추진함

- 초기단계에는 신규 시설 조성이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 등 가야고도 도심권을 중심으로 대표 콘텐츠를 우선 실증하고, 이용수요와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정례화와 대상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함
-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운영성과가 확인된 야간 콘텐츠를 주말·계절형 프로그램으로 정례화하고, 원도심 상권과 미식·숙박 등을 연계하여 야간 방문을 체류와 지역소비로 전환하는 구조를 강화함
- 3단계에서는 가야고도 도심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야간관광 운영모델을 분성산권과 스포츠형 야간관광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 관광사업자와 지역상권의 상품개발·운영 참여를 확대함
- 단계별 사업은 일률적으로 다음 단계로 전환하기보다 방문수요, 프로그램 참여, 관광객 만족도, 체류·소비 효과, 민간 참여 등 사업별 운영성과를 점검하여 지속·확대·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성과연계형 방식으로 추진함

<표 5-2> 김해시 야간관광 단계별 추진 로드맵

구분	1단계 기반·실증	2단계 정례·소비화	3단계 확장·민간화
추진방향	대표 콘텐츠 실증 및 정책기반 구축	콘텐츠 정례화 및 체류·소비 확대	관광시장 확대 및 민간 참여 강화
공간범위	가야고도 도심권 중심	가야고도 도심권-원도심 상권 연계	분성산권 및 야간관광 거점으로 확대
콘텐츠	통합브랜드 구축, 가야 달빛 스토리투어 시범운영, 가야고도 나이트 워크	콘텐츠의 주말·계절형 정례화, 밤맛로드, 시즌형 나이트 푸드마켓	분성산 야간체험, 스포츠형 야간관광, 민간 관광상품 확대
이동·정보	QR·야간관광 통합정보, 보행동선 개선	야간 셔틀·관광택시 등 관광교통 연계	이용수요에 따른 교통서비스 확대·고도화
체류·소비	참여상권 발굴 및 시범연계	스테이 나이트 김해, 야간소비 리워드, 미식·숙박 연계	민간 패키지·관광상품 확대 및 광역 관광수요 유치
성과관리 중점	인지도·방문·참여	체류·소비·숙박	재방문·민간참여·시장 확대

VI 결론

1 | 주요 연구결과

- 본 연구는 김해시 야간관광의 자원과 콘텐츠, 관광수요 및 소비 특성, 기존 정책·사업, 전문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김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분석 결과, 김해시는 주요 역사문화자원을 비롯하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전문대 등 야간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축제와 야간개장 등을 통해 야간시간대의 관광수요도 일정 부분 확인됨
- 그러나 개별 자원의 매력성과 활용 가능성에 비해 이를 야간시간대에 경험할 수 있는 공연·체험·투어 등의 콘텐츠 전환 및 관광거점 간 이동과 지역상권·숙박 등을 연계하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동향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야간관광은 단순한 야경 감상이나 조명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교통·안전·미식·상권·숙박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김해시 역시 국가유산야행, 가야문화축제 야간 프로그램, 대성동고분군 밤마실, 김해가야테마파크 야간개장 및 빛축제, 밤의 미술관 등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특정 행사기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 사업 간 연계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김해 야간관광의 주요 과제는 새로운 관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보다 기존 자원의 야간 콘텐츠화, 대표 콘텐츠의 정기·반복 운영, 관광거점 간 연결성 강화, 지역상권 및 숙박과의 연계, 통합적인 정책·성과관리체계 구축으로 나타남
- 야간관광 수요를 살펴보기 위해 2026년 가야문화축제 기간의 이동통신 방문인구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주간 방문인구는 5.6% 증가, 야간 방문인구는 19.1% 증가하여 야간시간대의 방문인구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김해가야테마파크 야간개장 이용객 조사에서는 응답자 128명 중 김해와 부산 거주자가 각각 33.9%, 경남이 19.0%로 나타났으며, 가족단위 방문 비중이 높았음
 - 야간경관·조명과 산책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체험거리와 볼거리 확대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다만 특정 기간 야간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김해시 전체 야간관광객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전문가 조사에서는 야간관광 여건의 중요도가 평균 4.53점인 반면 현재 수준은 2.78점으로 나타났으며, ‘야간 콘텐츠 다양성’과 ‘연중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야간 콘텐츠’가 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 발전 가능성은 96.6%가 ‘높음’ 이상으로 평가하였으며, 권역별 잠재력은 가야고도 도심권 4.72점, 원도심 미식·문화권 4.28점, 분성산 야간체험권 4.10점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가야고도 도심권에 우선 집중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원도심 상권과 분성산권으로 단계적으로 연계·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활성화 전략에서는 ‘가야 역사문화자원 기반 야간관광 브랜드 구축’이 중요도 4.79점, 실행 가능성 4.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표 야간콘텐츠 육성과 지역상권·미식·숙박 연계도 주요 과제로 나타남
 - 특히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봉황동유적을 연결하는 가야 야간 스토리투어는 중요도·시급성·실행 가능성이 모두 높아 우선 추진을 검토할 대표 콘텐츠로 도출됨
-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비전을 「가야의 밤을 경험하고,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 김해」로 설정하고, 가야 역사 기반 야간 특화 콘텐츠 고도화, 야간 접근성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로컬상권 연계 및 야간관광 소비 활성화, 민관협력 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성 확보의 4대 전략을 제시함
- 궁극적으로 김해시 야간관광은 개별 야간행사의 확대보다 콘텐츠, 이동·안전, 체류·소비, 운영·성과관리가 연계되는 구조를 구축하여 주간·당일형 관광을 야간 체류와 지역소비가 확대되는 관광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적 지향점을 둘 필요가 있음

2 | 정책적 제언

▣ 가야고도 도심권 중심의 선택과 집중 필요

- 김해 야간관광의 초기 정책역량은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봉황동유적이 집적된 가야고도 도심권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수로왕릉과 대성동고분군, 봉황동유적을 핵심 역사문화축으로 설정하고 봉황대길·동상동 등 원도심 상권을 체류·소비 확장공간으로 연계하여 역사문화관광과 지역소비가 하나의 관광동선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이후 이용수요와 사업성고가 확인되면 김해가야테마파크·분산성·김해천문대를 중심으로 한 분성산권 등으로 공간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적절함
 - 단기간에 다수의 신규 시설과 콘텐츠를 동시에 조성하기보다 가야고도 도심권에서 대표 콘텐츠와 운영모델을 먼저 실증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권역으로 확대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이 필요함

▣ 김해를 대표하는 야간관광 경험의 구축 필요

- 김해 야간관광의 경쟁력은 일반적인 조명시설이나 야간경관 자체보다 수로왕과 허왕후, 가야 건국 등 김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가야 역사문화의 야간 콘텐츠화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가야의 밤, 김해(GAYA NIGHT GIMHAE)」와 같은 통합적인 브랜드 개념 아래 ‘가야 달빛 스토리투어’를 대표 콘텐츠로 시범 운영하고, 국가유산야행, 대성동고분군 밤마실 등 기존 사업에서 축적된 콘텐츠를 주말형·계절형 정기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초기에는 소규모 예약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관광객 반응과 운영 안정성을 검증하고, 이후 운영성과에 따라 정례화·유료화·다국어 서비스 및 민간 관광상품 연계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함
 - 새로운 대규모 야간행사를 지속적으로 신설하기보다 기존 사업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행사기간에만 경험하는 김해의 밤’에서 ‘정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김해의 밤’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 야간 방문을 체류와 지역소비로 전환하는 구조 마련 필요

- 야간관광의 정책 성과는 단순한 방문객 증가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지역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고 지역상권과 숙박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는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야고도 도심권의 관광동선을 봉황대길·동상시장 등 원도심 상권과 연결하고, 김해 밤맛로드, 시즌형 나이트 푸드마켓, 스테이 나이트 김해 등의 상품을 통해 관광객의 이동을 식음·쇼핑·숙박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봉황대길은 역사문화관광과 지역소비를 연결하는 공간적 거점, 밤맛로드는 지역음식을 활용한 미식관광 상품, 시즌형 푸드마켓은 특정 시기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는 야간 콘텐츠로 각각 기능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소비 리워드는 초기부터 복잡한 결제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참여점포 방문·이용을 QR 등으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고, 이용성과에 따라 참여점포와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임
 - 숙박 연계상품 역시 국가유산야행·가야문화축제·가야테마파크 야간개장 및 스포츠행사 등 외부 방문객의 숙박수요가 예상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나이트 파크골프와 나이트런 등 스포츠형 야간관광은 중장기적인 관광시장 확장사업으로 설정하고, 참가자와 동반자의 숙박·미식·지역관광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실제 이용수요에 대응하는 야간관광 수용태세 개선 필요

- 야간관광 수용태세는 대규모 신규 기반시설을 우선 확충하기보다 대표 콘텐츠가 운영되는 장소와 시간대에 맞추어 보행·교통·정보·안전을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 필요함
- 수로왕릉역·박물관역을 대중교통 진입거점으로 활용하고 국립김해박물관·대성동고분군, 수로왕릉, 봉황대길, 동상동을 연결하는 「가야고도 나이트 워크」를 우선적인 야간 보행관광축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야간 셔틀 등은 상시 신규 노선으로 운영하기보다 국가유산야행, 가야테마파크 야간개장 등 야간수요가 발생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중심으로 예약형·기간형으로 시범 운영한 후 이용수요에 따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함

- 별도의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보다 기존 김해 관광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야간 콘텐츠 운영시간, 예약, 교통·주차, 음식점, 화장실, 숙박 및 귀가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관광거점에는 QR 기반 다국어 해설과 모바일 지도를 적용하고, 국가유산 주변은 저조도·간접조명과 보행유도조명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안전과 역사경관 보존을 함께 고려해야 함

■ 민관협력 추진체계와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야간관광은 관광부서만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김해시, 김해문화관광재단, 관계부서, 지역상인, 관광사업자 및 주민 간 명확한 역할분담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김해시는 정책방향 설정과 계획·예산·제도 및 부서 간 조정을 담당하고,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콘텐츠 기획·운영과 홍보·마케팅 및 민간협력을 담당하며, 지역상인과 관광사업자는 미식·숙박·쇼핑·관광상품 및 서비스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가 적절함
-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콘텐츠·관광상품 개발, 관광수용태세 개선, 지역상권 연계, 민간 참여 및 지원, 실태조사와 성과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광부서를 중심으로 관계부서, 김해문화관광재단, 지역상인, 관광사업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김해시 야간관광 민관협력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내 내부에는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상권 등 실무 현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이 콘텐츠를 직접 기획·운영하는 구조에서 지역상인과 관광사업자가 야간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구조로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민 수용성과 국가유산·생활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운영 필요

-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소음, 빛공해, 교통·주차 혼잡, 쓰레기 등 지역주민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의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 등 국가유산 공간에서는 대규모 조명이나 시설물 중심의 연출을 지양하고 국가유산과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운영방식을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객 집중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회차별 적정 인원과 사전예약제를 적용하고 운영시간·소음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광활동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함
 -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상인의 만족도와 불편사항, 민원, 혼잡도, 안전 및 환경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운영에 반영해야 함
- 궁극적으로 김해시 야간관광은 더 많은 야간행사를 개최하는 정책보다 김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밤을 만들고, 그 경험이 이동·체류·소비로 이어지며, 다시 지역의 관광산업과 민간 참여로 축적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초기에는 가야고도 도심권과 대표 콘텐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실증, 정례화 및 체류·소비 확대, 시장 확장·민간화의 단계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문헌 |

- 경북나드리, <https://tour.gb.go.kr/guide/noticeView.do?page=2&search=&idx=21429>,
검색일: 2026.09.11.
- 경주시 홈페이지, https://www.gyeongju.go.kr/tour/page.do?mnu_uid=4859&, 검색일:
2026.09.11.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know.tour.go.kr/>, 검색일: 2026.09.09.
- 교토시 공식 관광사이트, <https://kyoto.travel/en/morning-and-night>, 검색일: 2026.09.15.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95%BC%EA%B0%84%EA%B4%80%EA%B4%91>, 검색일: 2026.07.27.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검색일: 2026.05.19.
- 김포시(2023), 『김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김해시(2026), 『2026 가야문화축제 평가 및 컨설팅』.
-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낙동강레일파크 홈페이지, <https://rp.ghct.or.kr/board/board03>, 검색일:
2026.09.01.
- 김해문화관광재단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홈페이지, <https://clayarch.ghct.or.kr/board/event01>,
검색일: 2026.09.01.
- 김해시 홈페이지, <https://www.gimhae.go.kr/03360/00023/00025.web?gcode=1172&idx=2585790&amode=view&cpage=1&sstring=%EC%A1%B0%EB%A7%8C%EA%B0%95&stype=title>,
검색일: 2026.09.12.
- 김해시파크골프협회 홈페이지, <http://gimhaepg.co.kr/yeyagdesc/2213>, 검색일: 2026.09.12.
- 나이트레이스, <https://www.nightracebusan.co.kr>, 검색일: 2026.09.11.
- 대구광역시 동구청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dgdonggu/224368681725>, 검색일:
2026.09.11.
- 대전광역시(2022), 『2023년 대전 0시 축제 콘텐츠 개발 연구』.
- 마리나베이샌즈호텔, <https://ko.marinabaysands.com/guides/around-mbs/gardens-by-the-bay.html>,
검색일: 2026.09.15.
- 문화체육관광부(2022),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2023-2027』.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25),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중장기 정책지원 전략 수립』.
- 박경옥(2026), 야간경제 정책사례를 통한 부산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부산연구원 해외연수
2026-07-390.

- 양희원(2019),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강원도 신관광 구현, 강원연구원 정책메모 제782호.
- 여수시(2024), 『여수시 야간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
- 정대영 외(2024),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24-84.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 <https://www.jejudcitybus.com/nighttour/theme>, 검색일: 2026.09.07.
- 청도군 홈페이지, <https://www.cheongdo.go.kr/portal/board/post/view.do?bcldx=611&mid=0301070000&idx=317791>, 검색일:2026.09.10.
- 최나리(2025), 김해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 방안 연구, 김해연구원 정책연구 2025-05.
- 통영시 관광 공식 블로그 통영애온나, <https://blog.naver.com/tyaeonna/224407390649>, 검색일: 2026.09.11.
-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0.5.19.), “야간관광사업 3조 9천억 원 관광객 지출효과”
- 한국관광공사(2022), 『야간관광 실태조사』.
-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theme/getNightTourSearch.do>, 검색일: 2026.09.07.
- 해운대구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udpr&logNo=224373691150&parentCategoryNo=&categoryNo=128&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검색일: 2026.09.11.
- 홍순기(2025), 경상북도 야간관광 현황 및 개선방안, 경북연구원 연구 2025-07.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김해시 야간관광 현황 및 활성화 전략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김해시 야간관광의 자원과 수용태세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 및 우선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김해시 야간관광 정책의 기본방향,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개별 응답자의 의견과 개인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전문가적 견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연구원 문화관광복지연구부(055-344-7730)

1. 김해시 야간관광 현황 및 여건 진단

1. 다음은 김해시 야간관광 여건에 관한 항목입니다. 각 항목의 **정책적 중요도**와 **김해시의 현재 수준**을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 응답 기준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현재 수준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양호	매우 양호

평가항목	중요도	현재 수준
1. 가야 역사문화자원 등 야간관광 자원의 매력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야간관광 자원의 독창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야간에 참여할 수 있는 공연·체험·투어 등 콘텐츠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연중 또는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설 야간콘텐츠의 충분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야간관광 거점 간 보행동선 및 공간적 연계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대중교통·주차·택시·셔틀 등 야간 이동 편의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조명·보행환경·방범·안내시설 등 야간 안전성과 편의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음식점·카페·쇼핑·숙박 등 야간 체류 및 소비 여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봉리단길·동상동 등 지역상권과 관광콘텐츠의 연계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야간관광 정보 제공, 온라인 홍보 및 관광상품 판매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행정·공공기관·민간사업자·지역상인 간 협력체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김해시의 전반적인 야간관광 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께서는 김해시가 향후 야간관광을 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김해시 야간관광의 종합적인 발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2-1. 발전 가능성을 그렇게 평가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II. 야간관광 자원 및 권역별 잠재력 평가

3. 다음 권역이 김해시 야간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권역	주요 자원	잠재력				
		←낮음		높음→		
가야고도 도심권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봉황동유적, 봉리단길	①	②	③	④	⑤
분성산 야간체험권	김해가야테마파크, 분산성, 김해천문대	①	②	③	④	⑤
낙동강·생태레저권	낙동강레일파크, 와인동굴, 화포천습지 일원	①	②	③	④	⑤
원도심 미식·문화권	동상동 글로벌푸드타운, 전통시장, 다문화	①	②	③	④	⑤
장유 생활관광권	대청계곡, 율하·장유 상권, 카페·외식·산책자원	①	②	③	④	⑤

4. 김해시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권역을 2개 선택해 주십시오.

- ☐ 가야고도 도심권
- ☐ 분성산 야간체험권
- ☐ 낙동강·생태레저권
- ☐ 원도심 미식·문화권
- ☐ 장유 생활관광권
- ☐ 기타: _____

4-1.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권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_____
- 해당 권역을 우선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III. 핵심 문제점 및 개선과제

5.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3개**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기입해 주십시오.

선택	개선과제	우선순위
[]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야간관광 브랜드 및 핵심 콘텐츠 부족	1·2·3
[]	야간경관·조명·포토스팟 등 시각적 매력 부족	1·2·3
[]	공연·체험·투어 등 참여형 야간콘텐츠 부족	1·2·3
[]	행사·축제기간을 제외한 상설 야간콘텐츠 부족	1·2·3
[]	관광자원과 거점 간 공간적 연계 및 보행동선 미흡	1·2·3
[]	버스·택시·셔틀·주차 등 야간 이동 및 귀가수단 불편	1·2·3
[]	음식점·카페·쇼핑시설의 야간 운영 및 관광 연계 부족	1·2·3
[]	숙박시설 및 숙박 연계 관광상품 부족	1·2·3
[]	관광정보·통합지도·예약·홍보마케팅 부족	1·2·3
[]	야간 보행안전·방법·편의시설 미흡	1·2·3
[]	전담조직 및 관련 부서·기관 간 협업체계 미흡	1·2·3
[]	지역상인·민간기획자·관광사업자의 참여 부족	1·2·3
[]	소음·빛공해·주민수용성 등 지속가능성 관리 미흡	1·2·3
[]	기타: _____	1·2·3

6. 위에서 선택한 문제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사항과 그 이유는?

IV.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우선순위

※ 응답 기준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실행 가능성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7. 다음 전략이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얼마나 중요하며,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 주십시오.

전략	중요도	실행 가능성
1. 가야 역사문화자원 기반 야간관광 브랜드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공연·체험·투어 등 대표 야간콘텐츠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야간경관·보행공간·포토스팟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야간 교통·주차·안전체계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지역상권·미식·시장·숙박 연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통합홍보·관광상품·플랫폼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전담조직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소음·빛공해·안전 등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김해시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역량과 재원을 100%라고 가정할 때, 각 분야에 배분해야 할 적정 비중을 기입해 주십시오.

투자 분야	주요 내용	배분 비중
콘텐츠 개발	공연, 투어, 체험, 미디어콘텐츠, 축제·이벤트	()%
공간·경관 개선	경관조명, 포토스팟, 야간명소	()%
이동·안전환경 개선	대중교통, 주차, 안내, 방법, 편의시설	()%
상권·숙박 연계	미식, 야시장, 카페, 쇼핑, 숙박 패키지	()%
거버넌스·마케팅	전담조직, 민관협력, 플랫폼, 홍보	()%
합계		100%

V. 핵심 추진사업 평가

9. 다음은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주요 사업입니다.
각 사업의 정책적 중요도, 추진 시급성, 실행 가능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후보사업	중요도	시급성	실행 가능성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1. 수로왕릉-대성동고분군-봉황동유적을 연결하는 가야 야간 스토리투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가야의 거리·해반천·왕릉길을 연결하는 야간 보행관광축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가야 역사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상설 야간공연·미디어 콘텐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가야테마파크-분산성-김해천문대를 연계한 야간 교통(셔틀) 및 체험상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왕릉길·봉리단길·동상동 등을 연계한 야간 미식투어로드 및 나이트마켓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국가유산야행·가야문화축제 야간 콘텐츠의 정례화 및 연중 확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야간관광·음식·숙박·교통을 결합한 통합패스 및 체류상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야간관광 통합 정보 및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부산·창원·김해국제공항과 연계한 광역 야간관광 상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한옥체험관·호텔·지역숙박업체와 연계한 1박형 야간관광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1. 위 사업 중 김해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3개**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3순위: _____

9-2. 1순위 사업의 선정 이유와 성공조건을 작성해 주십시오.

VI. 정책 추진기반 및 실행조건

10. 김해시 야간관광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을 3개 선택해 주십시오.

- ☐ 김해시 차원의 명확한 비전과 중장기 계획
- ☐ 문화·관광·교통·안전·상권 부서 간 협업
- ☐ 김해문화관광재단 등 전문 운영기관의 역할 강화
- ☐ 민간 관광사업자 및 전문기획자의 참여
- ☐ 상인회·주민·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수용성
- ☐ 안정적인 예산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 연계
- ☐ 야간 교통·안전·편의시설의 우선 개선
- ☐ 유료화·상품화를 통한 자체 수익구조 마련
- ☐ 방문객·체류시간·소비액 등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 ☐ 관광상품 유통 및 홍보마케팅 전문성 강화
- ☐ 기타: _____

11. 김해시 야간관광 사업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데 가장 적절한 추진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김해시 담당부서가 직접 총괄
- ☐ 김해문화관광재단이 사업을 통합 운영
- ☐ 김해시와 김해문화관광재단의 공동 추진
- ☐ 민간 전문운영기관 위탁
- ☐ 행정·공공기관·민간이 참여하는 야간관광 협의체 구성
- ☐ 별도의 야간관광 전담조직 설치
- ☐ 기타: _____

11-1. 선택한 추진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Ⅶ. 전문가 제언

12. 김해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해 활용해야 할 핵심 야간관광 자원은 무엇입니까?

13. 가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야간관광 콘텐츠 중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십시오.

14. 부산·창원 등 인근 도시와 차별화할 수 있는 김해시 야간관광의 브랜드 콘셉트 또는 슬로건을 제안해 주십시오.

15. 야간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숙박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이동·교통·예약·안내 등 ‘라스트 마일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16. 김해시 야간관광이 지역상권의 실질적인 매출과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 주십시오.

17. 야간관광 활성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정책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8. 그 밖에 김해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나 신규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Ⅷ. 전문가 일반사항

본 문항은 조사결과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19. 소속 분야

- ☐ 대학·연구기관
-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문화관광재단
- ☐ 관광업계·여행업
- ☐ 숙박·외식·상권 관련 업계
- ☐ 문화·공연·콘텐츠 기획
- ☐ 도시계획·경관·교통·안전
- ☐ 지역단체·주민조직
- ☐ 기타: _____

20. 주요 전문분야

- ☐ 관광정책 및 관광개발
- ☐ 지역관광 및 관광마케팅
- ☐ 역사문화·국가유산
- ☐ 축제·공연·문화콘텐츠
- ☐ 관광상품 및 여행업
- ☐ 숙박·미식·상권
- ☐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 ☐ 야간경관·조명·공공디자인
- ☐ 안전·방법·환경
- ☐ 기타: _____

21. 관련 분야 경력

- ☐ 5년 미만
- ☐ 5년 이상~10년 미만
- ☐ 10년 이상~15년 미만
- ☐ 15년 이상~20년 미만
- ☐ 20년 이상

22. 김해시 방문 또는 관련 업무 경험

- ☐ 거주 또는 근무 경험이 있음
- ☐ 관련 사업, 연구, 자문 경험이 있음
-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방문
- ☐ 최근 3년 이내 1~2회 방문
- ☐ 방문 경험은 없으나 관련 자료를 검토함
- ☐ 방문 및 관련 업무 경험 없음

23. 소속기관 및 직위

- 이름:
- 소속기관: _____
- 직위: _____

김해시 야간관광 현황 및 활성화 전략 방안 연구

발 행 2026년 9월 30일
발 행 인 김 재 원
발 행 처 김 해 연 구 원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Tel (055)344-7700
Homepage : www.ghri.re.kr
ISBN : 979-11-221411-1-5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